

노인 디아코니아 전문가좌담회

-한국사회 뉴시니어의 새로운 역할 모색을 위한 교회의 지원방향-

일시 | 2016년 10월 27일(목) 10:00-12:00

장소 | 거룩한빛광성교회

주최 | 2016디아코니아코리아 조직위원회

주관교회 | 거룩한빛광성교회



『고령사회』, 한국교회의 갈 길을 묻다

제3회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 공동준비위원장
거룩한빛광성교회 담임
정성진 목사

2005년과 2010년 한국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에 이어 '2016 한국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 개최를 통해 여러분을 “노인디아코니아 세미나와 좌담회”에 초대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세미나가 한국교회와 사회의 소통의 다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 커다란 변화 속에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사람들의 평균수명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앞두고 한국 사회는 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필자는 고령사회의 전망이 반드시 어둡기만 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은퇴를 맞이하는 뉴시니어는 과거 노년 세대보다 교육수준이 높고 건강하기 때문에 지식경제에서 갖는 잠재력을 토대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리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뉴시니어는 과거 같으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 자녀들의 공양을 받아야 할 분들이지만 이제는 젊은이 못지않은 건강과 정신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도 단순히 복지의 대상이 아니라 복지의 주체가 되고, 사회발전의 중요한 동력으로 나서야 할 분들입니다. 특히 시민사회의 자원봉사 영역에서 큰 일을 감당해 줄 수 있는 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뉴시니어들이 한국 사회에서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가령,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사람은 스스로 설 기회를 주고, 가족이나 친지의 도움으로 자립할 수 있는 사람은 적절한 보상을 하고, 사회나 국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자립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것에 상응하는 지원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자립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가 취하여야 할 복지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한국사회의 사회안전망이라는 그물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내어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취지에서, 한국사회 뉴시니어의 새로운 사회적 역할 모색을 위해 한국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지원해야 할지 방향성을 제시하는 이 자리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번 학술대회는 “『고령사회』. 한국교회의 갈 길을 묻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국사회 뉴시니어의 새로운 역할 모색을 위한 교회의 지원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깊이있는 주제를 정과 성을 다해 연구하여 발표하여 주신 여러 석학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이 논문들이 한국 사회와 한국교회의 지원방향제시에 도움이 되도록 기원합니다. 특별히 본 행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2016년 10월 27일

일정표

시간	순서	담당
10:00-10:05	내빈인사	김옥현 장로
10:05-10:10	기도	김상현 장로
10:10-10:15	특송	금빛 합창단
10:15-10:20	참가자소개	정성진 목사
10:20-10:35	모두발언	손의성 교수
10:35-11:50	전문가좌담회	
11:50	기념촬영	

전문가좌담회 참가자

정성진 목사	목회/ 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회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 공동준비위원장 - 거룩한빛광성교회 담임목사 	
김동배 교수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한국노년학회 회장 역임 	
손의성 교수	신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재대학교 복지신학과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사회복지전문위원 	
정경희 박사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장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문위원 	
한정란 교수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서대학교 노인복지학과 - 한국노년교육학회 회장 	

뉴시니어의 사회참여와 교회의 역할

손의성 교수(배재대학교 복지신학과)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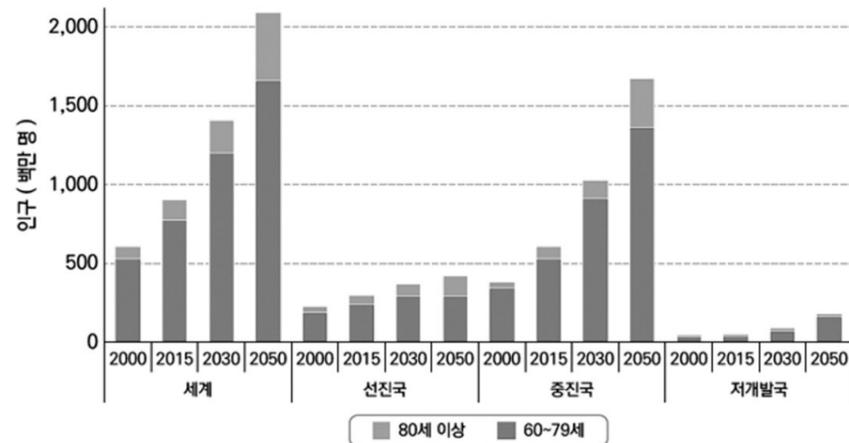
- I. 서론
- II. 고령화와 뉴시니어의 등장
 - 1) 고령화 현상과 사회문제
 - 2) 고령화 대응을 위한 노력들
 - 3) 뉴시니어의 등장과 특성
- III. 뉴시니어와 사회참여
 - 1) 고령자의 사회참여의 이해
 - 2) 뉴시니어의 사회참여에 관한 노년학적 관점
- IV. 뉴시니어의 사회참여를 위한 교회의 역할
 - 1) 교회의 뉴시니어 사역의 필요성
 - 2) 교회의 뉴시니어 사역의 필요성
 - 3) 뉴시니어의 사회참여를 위한 교회의 역할과 과제
- V. 사회참여활성화를 위한 교회의 뉴시니어 사역모델 사례
 - 1) 교회의 뉴시니어 사역모델
 - 2) 뉴시니어 봉사사역 모델
 - 3) 교회의 뉴시니어 사역을 위한 지도자 훈련과정
 - 4) 교회의 뉴시니어 사역 실천과정
 - 5) 성공적 노화에 기반한 교회의 뉴시니어 교육과정(노인대학)
- VI. 맺는 글

1. 서론

2006년 영국 옥스퍼드대 문화인류학을 연구하는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인구가 소멸되는 1호국가로 한국을 지명했으며, 세계적인 경제예측가인 미국의 해리 덴트(Harry S. Dent Jr., 2015) 박사(2015)도 ‘2018 인구절벽이 온다(The Demographic Cliff)’라는 책에서 “한국의 가장 위험한 시기는 지금부터 2016년까지이고 그리고 2018년과 2019년”이라고 일갈했다. 즉, 한국이 ‘인구 절벽’ 위기에 몰렸으며, 저출산 문제가 ‘벼랑 끝에 섰다’는 진단이다.⁵⁹⁾ 20세기에 들어와 세계 인구는 두 차례나 두 배로 증가했다. 금세기에는 곳곳의 출산율 하락으로 인해 두 배 증가하는 일이 한 번 있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65세 이상 노년층은 25년 내에 두 배로 증가할 전망이다.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유엔의 ‘2015년 세계인구전망(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5 Revision)’에 따르면 향후 수십 년간 전 세계적으로 60세 이상 노년층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며, 증가 속도도 지속적으로 가속화될 전망이다. 2015년 9억 100만 명이었던 60세 이상 인구는 2030년 약 14억 명(56% 증가)으로 증가할 것이며, 2050년엔 2015년의 2배 수준인 21억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80세 이상의 “초고령” 노년층은 더 빠르게 불어나 2050년에 그 수가 4억 3,400만 명(60세 이상 노년층의 20%)에 달해 오늘날 수준(1억 2,500만 명, 60세 이상 노년층의 14%)의 세 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그림 1〉 연도별·지역별 60~79세, 80세 이상 노년층 비율

출처 : United Nations (2015). World Population Prospects : The 2015 Revi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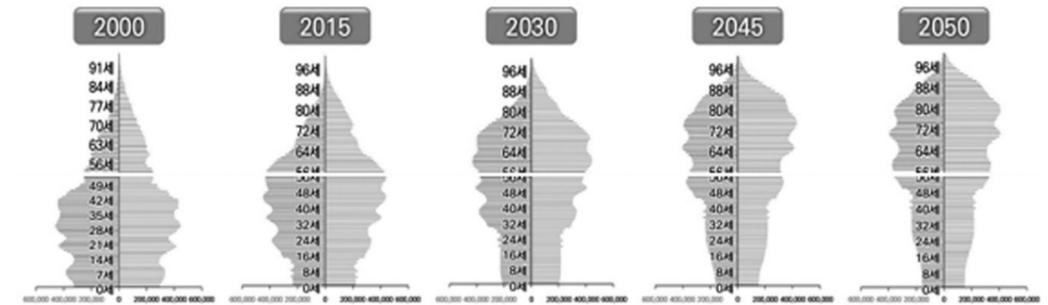


한편, 통계청(2015)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장수사회에 진입하면서 평균수명이 과거 45년간 20년이 증가하였으며, 향후 45년간 7년이 추가적으로 더 증가될 전망이다. 1970년 61.9세(남 58.7세, 여 65.6세)에서 2014년 81.5세(남 78.0세, 여 84.8세)로 증가했으며, 2060년에는 88.6세(남 86.6세, 여 90.3세)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미 2007년부터는 OECD 평균수준을 상회하여 최장수국가 수준에 근접하여 90세 이상 고령인구가 2015년 16만명에서 20년에 약 200만 명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 현상과 함께 베이비붐 세

59) http://www.bosa.co.kr/umap/board_n_view.asp?board_pk=126071&what_board=1076

대로 인해 2020년부터 인구고령화가 더욱 가속화되어 노인인구는 2015년 662만명(13.1%) → 2030년 1,269만명(24.3%) → 2050년 약 1,800만명(37.4%)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아래 그림과 같이 인구구조가 피라미드 → 항아리 → 역피라미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노인인구 중 후기노인인구(85세 이상) 비율은 2015년 8.3%에서 2050년 20.6%로 증가하여 노인인구의 고령화도 심화될 전망이다.

〈그림 2〉 연령대별 인구구조의 변화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5

하지만 인구 고령화가 미래 사회에 미칠 영향이 부정적일 것이라고만 단정 짓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노년층의 절대적·상대적 증가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하지만 과거의 노년 세대보다 교육 수준이 높고 건강해진 노년층은 지식경제에서 갖는 잠재력을 토대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고령화로 인해 50세를 넘어선 인구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저조해지고, 수입원이 없는 노년층이 생활비를 저축에 의존하다 보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국가의 경제성장 속도는 늦어질 수밖에 없지만, 인구 고령화가 반드시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된다(Bloom, Canning, Fink, 2010)는 고령화가 반드시 노동인구 감소로 이어진다는 주장에 반론을 제기한다. Bloom 등(2010)은 고령화로 인해 세계 경제활동 참여율이 감소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출산율 감소로 인해 전체 인구 대비 노동인구는 오히려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세계 경제활동 참여율은 2005년에서 2050년 사이 4.4% 포인트 감소하지만 같은 기간 전체 인구 대비 노동인구 비율은 오히려 1.9% 포인트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인구 고령화가 반드시 경제위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해 준다.

〈표 1〉 세계노동인구 : 1960년, 2005년, 2050년

	1960년	2005년	2050년(추정)
경제활동참여율(15세 이상)	67.4%	65.8%	61.4%
인구 대비 노동인구 비율	42.3%	47.1%	49.0%

출처 : Bloom, Canning, & Fink(2010).

이러한 경제적 변화의 특성 외에도 고령화의 결과를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고령자의 특성의 변화에 있다. 현대 사회로 진입하면서 과거의 노인세대와는 달리 보다 활동적이며 사회참여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높을 뿐 아니라, 보다 주도적이며 능동적으로 자신의 노후의 삶을 설계하고 조정해 나가는 세대가 늘어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 속에는 전 지구적인 고령화를 경험하면서 새로운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보통의 노화(normal aging)에서 최적의 노화(optimal aging)로 나아가고자 하는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ing) 이론을 비롯하여 활동적 노화(Active Aging), 생산적 노화(Productive Aging), 창조적 노화(Creative Aging), 자립적 노화(Independent Aging) 등의 적극적 노화 개념에 기초한 노인 정책과 교육 및 복지 체계가 수립되어왔다. 이러한 변화를 나타내는 시대를 가리켜 ‘신노년 시대’(New Aging)로 지칭한다. 신노년 시대는 노인에게 대한 긍정적 인식 변화,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대, 의존에서 자립적인 삶의 추구, 활동적 노년으로의 전환 등의 특징을 갖는다.

Neugarten(1974)은 고령화 흐름에 적합한 연령 구분을 새롭게 제시하였는데, 그가 55-75세를 지칭한 ‘Young Old(신중년-新中年)’ 세대는 이전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그는 신중년(新中年)은 건강하고 풍요로우며, 교육수준이 높고, 정치적 역량을 가진 세대라고 보았다. 그러면서 Neugarten(1974)은 “오늘의 노인은 어제의 노인과 다르다”고 하면서 ‘Young Old’를 노인이라고 부르거나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신중년에 대한 특성을 근거로 이시형 한국자연의학종합연구원 원장은 2008년 ‘신노년 문화(New Culture for Old Age)’라는 주제로 개최된 ‘제3회 서울 노년학 국제 학술심포지엄’에서 바탕으로 오늘 날의 신중년에 대한 오늘 날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²⁾ 그는 뉴시니어로 볼 수 있는 신중년을 ‘에이징 파워(aging power)’라는 용어로 묘사하면서 신중년의 95%는 건강하며, 극렬한 운동을 하지 않는 한 30대에 비해서 체력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으며, 30대에 비해 근육량에서 30%, 폐활량에서 17%의 차이가 나지만 일상생활에는 별 지장이 없다고 하였다. 또한 정신적 건강에서도 걱정,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의 요소가 있지만 신중년은 자기통제력, 인내, 관조, 안정성, 적응력에서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으며, 창조성에서도 젊은 세대와 같이 툭툭 튀는 재치는 부족하지만, 많은 경험과 숙성된 자료, 고독력과 인내력 등 여러 조합을 통해 창조성을 발휘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젊은 세대에 비해 논리 수학, 공간능력은 떨어지지만, 상식, 판단력, 이해력, 자기 성찰력, 대인 관계력 등을 측정할 결과도 높으며, 기억력에 있어 50세 이하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관리하기에 따라 해마신경세포가 증식되어 기억력이 쇠퇴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따라서 충분한 생산성을 가진 시니어에 대한 능력과 가치를 인정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한국사회의 급격한 고령화 현상은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아니 더욱 심하게 경험되고 있다. 한국교회는 고령화 사회를 지나 곧 1-2년 내에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노년목회사역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없이 과거의 인구구조와 특성에 기초한 패러다임에 의해 목회를 하고 있다. 사실 한국교회는 일찍부터 교회를 중심으로 한 노인여가 및 노인교육 사역을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사업이 시작된 것은 1965년 4월 부산 범일동에서 ‘한얼경로교실’이 설립된 때부터였다. 그 뒤 1970년 9월 부산 범일동에서 우리

2) http://weekly1.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7/02/2008070200820.html
http://www.silvernews.or.kr/insiter.php?design_file=article_v.php&article_num=3374&board=article&search_item=A&search_value=%EC%84%9C%EC%9A%B8%EB%85%B8%EB%85%84%ED%95%99&x=29&y=0

나라 최초의 노인대학인 ‘한얼노인대학’이 설립되었으며, 1972년 10월 서울 종로 태화관에서 서울평생교육원이 개설되고 ‘노후생활강좌’가 개시되었다.³⁾ 이후 1973년 11월 서울 명동 가톨릭여성회관내에 덕명의숙이라는 명칭의 노인교육기관이 설립되었고, 1974년에는 서울 서대문구 문화촌에 인왕노인학교가 설립되었다. 그 뒤를 이어 1975년에 개신교회 최초로 설립된 정릉교회 경로대학을 필두로 수많은 한국교회가 노인학교를 설립·운영하고 있다. 아직 기독교에서 운영되는 노인대학(경로대학)의 정확한 통계가 없지만 부분적으로 확인된 자료에 의하면(한정란, 2015), 개신교와 가톨릭을 합한 기독교 전체 노인대학 숫자가 964개소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등록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교회나 성당의 노인대학을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수의 기독교 노인대학이 운영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교회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신앙을 훈련하고 건강과 생활지식도 가르치며, 여가활동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 한국교회에 중년세대는 물론 고령세대에 대한 목회적 관심이 무르익지 못해 여전히 중고령자를 위한 사역이 교회 사역의 중심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미 이 사회는 뉴시니어 혹은 신노년에 대한 새로운 세대적 특성이 강조되며, 성공적 노화나 액티브 에이징과 같은 활동적이고 생산적 노화의 패러다임이 자리를 잡아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여전히 교회는 1970년대 노인대학의 패러다임에 머무르고 있다. 그리고 이 사회는 물론 교회에서도 노년에 대한 긍정적 인식보다는 부정적 인식에 뿌리를 두고 있어서 이 시대에 맞는 효과적인 시니어 사역을 전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금의 노년층은 과거의 노년층과는 다르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중심이 되고 있는 뉴시니어라고 불리는 새로운 특성의 중고령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이러한 뉴시니어의 증가에 대비한 사역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은 노년기를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기뿐만 아니라 이해하지 않고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자, 새로운 발전가능성이 열려있는 시기로 이해하려는 관점이 두드러지고 있는 만큼 교회도 이러한 관점에서 새롭게 교회와 사회의 고령화 문제를 대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국교회는 노인 및 시니어 사역에 대한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해야 할 시점에 이르게 되었다. 시니어 목회를 성공적으로 이끈 Gallagher(2006)는 고령화 물결(Age Wave)은 이 사회와 교회의 위기가 될 수 있지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최선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저출산과 한국교회의 쇠퇴로 인해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교회학교가 사라진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시니어 사역을 통한 중고령 교인들이 안정적인 역할을 감당해준다면 아동과 청소년 사역도 함께 성장할 것이다.

이제 교회는 환과고독(鰥寡孤獨)과 같은 노년기의 취약성에 초점을 둔 과거의 패러다임에 머물기 보다는 이 시대에 맞게 긍정적이고 주도적인 성공적 노화와 역량강화의 관점에서 시니어와 노인들이 자신의 삶의 변화와 위기에 잘 적응하도록 도우며,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인의 생산성과 활동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회가 이 시대의 변화를 정확히 인식하고 노화와 시니어들의 특성을 잘 이해하면서 교회의 중심 사역으로서 시니어 사역을 충실히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점점 한국사회의 신뢰와 성장의 동력을 잃어가는 한국교회의 미래를 새롭게 밝힐 수 있는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

3)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94519&cid=46615&categoryId=46615>(한국민족문화대백과)

야 할 것이다. 또한, 시니어 사역의 성공적인 수행은 곧 한국사회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큰 주춧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사회의 시니어 사역 모델을 한국교회가 제시함으로써 시대적 사명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본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과 뉴시니어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고령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되는 노화이론들을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교회가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뉴시니어를 위한 성공적인 사역을 위해 어떤 준비와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제시한 후, 마지막으로 교회의 시니어 사역 모델에 대한 몇 가지 모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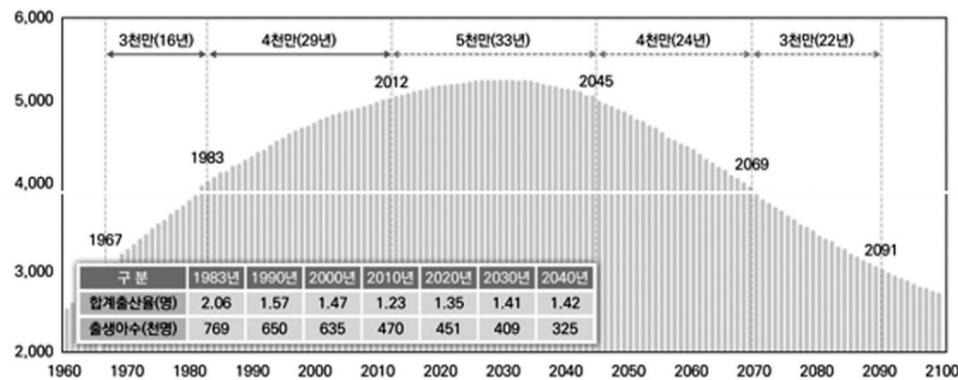
II. 고령화와 뉴시니어의 등장

1. 고령화 현상과 사회문제

1) 고령화 현상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수명증가 등으로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15년 5,062만명에서 2030년 5,216만명(정점)까지 증가 후 2031년부터 본격적으로 인구 감소가 시작되어 2050년 4,812만명으로 200만명 이상 감소할 전망이다. 유소년인구(0~14세)는 2015년 704만명에서 2050년 478만명으로 감소하며, 중요한 사회경제지표인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을 정점(3,704만명)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50년 2,535만명으로 1천만명 이상 감소하게 된다.

〈그림 3〉 출산율 변화에 따른 총인구 규모 전망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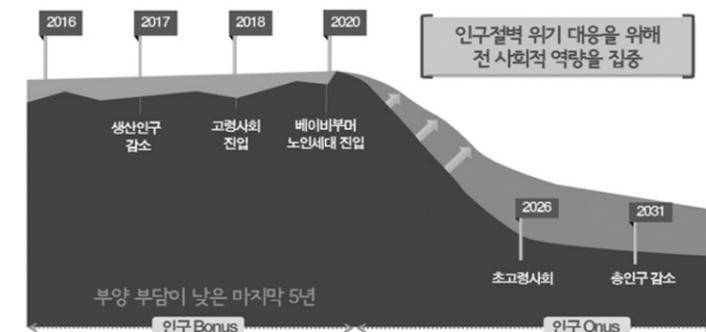
〈표 2〉 총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 전망

	2000	2015	2020	2030	2040	2050
총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	7.2	13.1	15.7	24.3	32.3	37.4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1

이러한 급속하고 심각하게 진행되는 고령화는 고용·교육·주거 등 사회구조적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저출산 대책과 고령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삶의 질, 노동력 확보, 경제·사회 체질 개선 등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한 국가발전전략이라는 근본적 문제의식 강화 필요하며, 인구정책의 특성상 적어도 한 세대(20~30년)를 바라보는 장기적 정책시야가 중요하다(대한민국정부, 2016). 그리고 아래 〈그림 4〉는 내년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 감소 시기를 맞이하게 되고, 2018년에는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면서 그동안 풍부한 인적자원을 통해 성장을 이끌었던 소위 인구 Bonus 시기가 끝나고, 2020년을 기점으로 인구가 성장에 부담이 되는 인구 Onus 시기로 진행된다. 따라서 인구절벽 시기라고 불리는 2020년까지 고령화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부와 민간과 개인의 다각적인 노력과 협력이 요구된다.

〈그림 4〉 인구 Bonus와 인구 Onus



출처 : 대한민국정부(2016).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 브릿지 플랜 2020.

2)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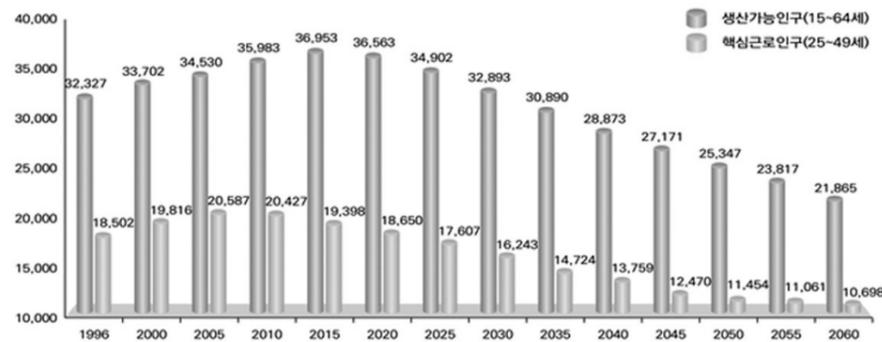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에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미래사회 위험을 다음과 같이 전망하고 있다.

첫째, ‘노동력 부족 국가’로 전환이다. 현재는 일부 직종에서만 인력이 부족하나,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저출산 현상의 지속으로 중장기적으로 총량적인 인력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노년부양비⁴⁾ 부담이 크게 증가된다. 2015년 생산가능인구(15~64세 인구)

4) 노년부양비 = (65세이상인구)/(15~64세인구)*100 :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노인 인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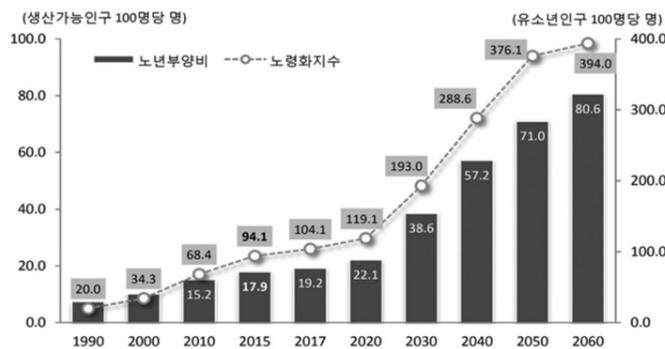
100명이 노인(65세이상 인구) 17.9명을 부양하고 있으나, 206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노인 80.6명을 부양해야 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5> 생산가능인구와 핵심근로인구의 장래 추계 인구 (단위: 천명)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1

<그림 6>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출처: 통계청(2015), 고령자동계.

둘째, ‘노동력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이다. 노동시장에 신규로 진입할 노동인구의 감소로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평균연령이 2015년 40.3세에서 2030년 42.9세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미 주요 산업부문에서 노동력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며, 우리나라 전체 산업 종사자 평균연령은 2009년 38.5세에서 2014년 40.4세로 증가했다.

셋째, 잠재성장률 하락의 전망이다. 현재 출산율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상대적으로 구매력이 높은 노동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구매력이 낮은 노인인구가 증가됨으로써 소비와 투자증가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내수시장 위축 현상이 두드러진다. 노동력 감소, 노동생산성 저하, 투자 위축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우려가 있는데, 2001~2010년 평균 경제성장률이 4.42%에서 2051~2060년 0.99% 하락할 전망이다.

넷째, 사회보장 부담의 증가이다. 고령화로 인해 연금·보험료 납부 인구는 감소하나 수급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사회보장 지출부담이 급증하게 된다. 향후 국민연금은 2044년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하여, 2060년에는 적립기금이 소진될 전망이며, 건강보험 또한 현 보험료율과 지출 행태가 유지될 경우 2025년에 고갈될 전망이다.

다섯째, 재정수지의 악화이다. 저출산 및 잠재성장률 둔화에 따라 총수입 증가율이 낮아지고 고령화에 따라

복지지출, 총지출은 빠르게 증가하여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4년 35.9%로 양호한 수준이나 저출산·고령화로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상승할 우려가 있다.

여섯째, 노후소득의 불안정이다. 우리나라는 연금제도의 미성숙으로 인한 낮은 보장수준으로 인해 노인의 빈곤율이 2014년 현재 49.6%로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일본 19.4%, 독일 9.4%, 스웨덴 9.3%, 프랑스 3.8%, OECD 평균 12.6% 등과 비교할 때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현재 상황에서는 자산의 50%를 소득으로 전환해도 총 노후소득이 노후생활에 필요한 금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는 노인가구의 60%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일곱째, 농촌의 공동화이다. 농촌인구 고령화는 급격히 진행될 예정으로 면지역은 2008년 518만명에서 2053년 282만 명 수준으로 인구급감이 예상된다. 그리고 도시와 농촌(시군)의 고령화율을 살펴보면, 도시와 농촌의 시(市) 지역은 각각 고령화율이 10.1%와 12.2%로 비슷하나, 농촌의 군(郡) 지역은 22.1%로 거의 2배나 고령화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도시와 농촌의 고령화 인구 및 고령화율

구분	전체(천 명)			65세 이상(%)		
	2005	2010	2012	2005	2010	2012
구성 비율	도시					
	65.9	65.2	64.9	7.0	9.2	10.1
	농촌					
	24.9	25.9	26.3	10.1	11.6	12.2
	군					
	9.2	8.9	8.8	18.9	21.6	22.4

출처: 안전행정부(2005; 2010; 2012), 주민등록인구통계, 조미형·박대식·남승희(2014), 농촌 지역사회기반(communitry-based) 복지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재인용.

2. 고령화 대응을 위한 노력들

인구 고령화가 전지구적 사회·경제에 미치는 파장과 그 대응에 관해서는 오래전부터 국제사회 속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고령화에 대한 국제적 대책으로는 1982년에 개최된 제1차 세계고령화총회(World Assembly on Ageing)를 통해 ‘비엔나 국제고령화행동계획(Vienna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을 수립하고 복지, 소득보장, 고용, 가족, 주거정책 등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991년 유엔(UN)총회는 노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UN Principles for Older Persons)’을 채택하고 노인의 자립, 참여, 보호, 자아실현, 존엄성과 관련된 18가지 권리를 명시했다. 2002년에 개최된 제2차 세계고령화 총회는 활동적 노화(Active Aging)와 ‘고령친화도시(Age-Friendly Cities)’의 기반이 된 ‘마드리드 국제고령화행동계획’을 채택하여 고령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 행동의 대안 마련을 촉구하였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대책의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3차에 걸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다. 이 기본계획에

서 제시된 고령화 대책은 활기찬 노후 보장을 위해 소득, 건강 등 고령자 삶의 질 확보와 고령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그리고 고령사회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고령친화산업 육성 등 산업·경제적 개선 등을 위한 정책과 실행 계획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새롭게 수립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대한민국정부, 2016)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3차 기본계획은 일명 ‘브릿지 플랜 2020’으로 명명하고 있는데,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발전사회 구현’이라는 비전 하에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을 현재 1.21명에서 2020년 1.5명으로 높여 초저출산을 탈피하고, ‘생산적이고 활기찬 고령사회’라는 정책적 목표 하에 노인빈곤율을 현재 49.6%에서 2020년 39%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4년 후인 2020년을 기점으로 인구 BONUS기에서 인구 ONUS기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안정적으로 넘게 해주는 튼튼한 다리가 되는 기본계획이다. 구체적인 고령화 정책의 추진방향과 추진전략은 <그림 7>과 같다.

<그림 7>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고령화 정책 추진방향과 전략

과제 체계도				
추진 방향	노후소득보장 강화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여성, 중·고령자, 외국인력 활용 확대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각지대 해소 • 자산 유동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돌봄부담경감 • 안전한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시스템 개선 • 다문화 대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버시장 대응 • 지속가능한 발전기반 구축
추진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적연금 강화 ▶주택·농지연금 대폭 확산 ▶개인·퇴직연금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자 건강 생활 보장 ▶고령자 문화·여가·사회 참여 확대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고용 활성화 ▶고령자 고용기반 확대 ▶사회통합적 외국인력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친화산업의 신성장동력 육성 ▶인구다문화사이징 대비체계 강화 ▶재정적 지속 가능성 제고

3. 뉴시니어의 등장과 특성

‘뉴시니어(New Senior)’라고 불리는 계층은 이전의 중고령층 및 노인세대와는 다른 감성과 문화 및 경제소비적 특성을 지닌다. 그런데 이러한 뉴시니어의 중심에는 베이비붐 세대가 있다. 뉴시니어와 베이비붐 세대가 동일한 개념은 아니지만 베이비붐 세대가 뉴시니어의 대다수를 차지하며, 압축적 사회변동을 경험함으로써 현 노인 세대와는 다른 가치관과 욕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베이비붐 세대를 뉴시니어와 동일시하기도 한다.

한편, 연령에 의해 뉴시니어를 구분하는 것이 제한적인 측면도 있지만 나름대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뉴시니어를 대표할 수 있는 연령대로 정의한다면, 좁게는 베이비붐 세대가 주축이 되며, 50플러스재단이 인생이모작 사업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50-64세에 해당하는 연령대를 의미하며, 넓게는 50-64세 연령대를 포함하여 이미 노년기에 접어든 고령자 중에서 활기차고 성공적이며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노후를 영위하고 있는 노년층으로 주로 50-75세에 해당하는 연령대로 볼 수 있는데, 이 연령대는 Neugarten(1974)이 분류한 ‘Young Old’(55-75세)

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뉴시니어 용어를 사용하는 상황에 따라 좁게 혹은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뉴시니어는 연령으로만 구분하기 보다는 하나의 트렌드, 성향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 장에서는 먼저 뉴시니어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베이비붐 세대의 등장배경과 특성을 살펴보고, 그런 다음 뉴시니어에 대한 특성을 간략히 정리하고자 한다.

1) 뉴시니어로서의 베이비붐 세대의 등장과 특성

가. 베이비붐 세대의 정의

우리나라 2012년 현재 약 712만 명으로 총 인구의 14.2%를 차지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baby boom generation)는(국가통계포털, 2012 연령별 주민등록 연앙인구)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중노년 문화적 특성을 가진다. 베이비붐 세대를 규정하는 것은 각 나라의 사정에 따라 다르다. 시사상식사전(박문각)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46년부터 1965년 사이에 출생한 세대를 지칭한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떨어져 있던 부부들이 전쟁이 끝나자 다시 만나고, 미뤄졌던 결혼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면서 생겨난 세대로 ‘베이비붐’이라고도 한다. 미국 역사상 제대로 교육받았다고 평가받는 베이비붐 세대는 이전 세대와는 달리 경제적인 성장과 풍요 속에서 높은 교육수준과 미디어의 영향으로 다양한 사회운동과 문화운동을 주도해 왔다. 로큰롤 음악과 히피문화가 베이비붐 세대의 대표적인 문화이며, 이들은 냉전의 이념 아래 베트남 전쟁을 겪으면서 반전(反戰)운동을 전개하고, 성(性) 해방, 시민사회의 권리운동 등 사회운동에 참여하였으며, 과학기술의 발전, 에너지 위기, 우주선 시대를 겪었고, 1980~90년대의 소비주체가 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6·25전쟁 이후인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출생한 53세에서 61세에 해당한다(2016년 현재). 일본의 경우 1947년부터 1949년 사이에 출생한 세대를 베이비붐 세대라 한다. 한편 손양민(2010)은 1950~1954년까지는 전후세대, 1955~1959년생은 전기 베이비붐 세대, 1960~1963년생까지는 후기 베이비붐 세대로 구분하기도 한다.

나. 베이비붐 세대의 배경과 특성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들은 압축적인 산업화의 과정에서 상당수가 고등교육을 받았고 고도성장의 혜택을 누린 세대이다. 이들은 유년기(1950년대)에 절대 빈곤의 시대를 지내야 했고, 10대와 20대에는(1960년대~1970년대) 권위주의 정치체제 하에서 지내야 했다. 청년 시절에는 고등교육 기회의 확대가 충분치 못했기에 내부에서 격심한 경쟁을 경험해야 했다. 이들이 사회에 진출한 시기(1980년대)에는 일명 넥타이부대로써 민주화에 참여하였지만 경제성장과 민주화 사이에서 갈등을 겪었다. 경제성장의 주역이었으나, IMF를 겪고, 경제활동에 있어 큰 타격을 직접 겪어야만 했다(방하남 등, 2010). 아날로그 시대에 교육을 받았지만 중장년 시기에는 디지털 시대를 살았던 세대로, 이들은 노후에 활발한 사회참여를 희망하는 등 활동적 노후에 대한 욕구가 강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손양민, 2010; 정경희, 2009).

정경희 등(2010a)은 베이비붐 세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 중 대표적인 몇 가지 특징들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학적인 특성에서는 읍면(邑面) 지역(17.7%)보다는 동(洞) 지역(82.3%)에 더 많이 거주하여 농어촌 보다는 도시 거주 비율이 높았으며, 약 70%가 고등학교 이상 학력으로 학력 수준이 이전 세대에 비해 매우 높았다.

둘째, 가족 및 사회관계 특성에서는 평균 자녀수가 1.9명으로 자녀수는 줄었으며, 약 61.2%의 부모가 생존해 있으며, 50.2%가 성인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으면서 대부분이 부모에게 도구적 도움, 특히 경제적 인 지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형적인 '끼인 세대'의 특성을 보였으며, 개인의 삶에 있어 배우자의 의미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건강 특성에서는 68.5%가 운동을 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다양하게 식품을 섭취하고 있을 뿐 아니라, 건강검진 수검률도 전체의 80.8%로 매우 높은 편이며, 만성질환의 유병률(27.1%)과 우울증상의 유병률(10.2%)도 낮은 편이며, 건강증진행위(식이·운동, 스트레스관리, 건강교육, 상담 등)에 대한 서비스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신의 건강 문제에 대한 관심과 대비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자산 및 소비 특성에서는 전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23.4만 원이며, 부동산, 동산 등의 자산규모는 평균 3.3억 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79.7%가 저축 또는 보험 등에 가입하여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섯째, 경제활동 특성에서는 성별에 따른 경제활동 경험 차이가 별로 없었으며, 63.9%는 노후에도 지속적으로 일하기를 희망하며, 특히 남성(81.4%)이 여성(48.1%)보다 노후 일자리를 희망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이전에 했던 일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을 희망함으로써 해 본 경험이 있는 일자리에 종사하길 희망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70.0%이며, 이전에 해 보지 못한 새로운 일자리를 희망하고 있는 비율도 30%로 나타났다. 그리고 2/3 정도인 70.9%는 노후 삶에 있어서 일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여섯째, 사회참여 특성에서는 69.4%는 현재 삶에서 여가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히 노후 삶에서 여가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3.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7.3%는 자원봉사 단체에 소속되어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으며, 43.9%는 노후에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교육수준이 높고, 소득 수준이 높은 경우, 그리고 여성의 경우 노후 자원봉사에 대한 의지가 높았다. 또한, 약 40%는 현재 삶과 노후의 삶에 있어 모두 사회참여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노년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은 교육내용으로, 64.1%는 '건강관리교육'을 1순위로 응답했으며 15.5%는 '여가와 취미 관련 교육'이라고 응답하였다. 노후설계에 대한 관심은 많으나 유료화 된 노후설계 서비스를 이용할 만큼 인식수준이 높지는 않았다. 그러나 절반 정도인 43.9%가 향후 노후에 대비해 재무, 여가, 사회참여, 경력관리 등의 다차원적인 노후설계 컨설팅 서비스의 이용의향을 갖고 있어서 생애설계에 대한 관심과 서비스 이용 욕구가 높았다.

마지막으로, 가치관 특성에서는 노부모에 대한 부양책임이 자녀나 가족에게 있다는 응답이 많아 아직까지 전통적인 유교가치관이 유지되고 있었으나, 본인의 노후 생활대책 마련에서는 자녀나 부모에게 의존하기 보다는 본인과 배우자 스스로 책임지려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 부양책임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또한 노후에 자녀와 함께 거주하기보다는 부부 혹은 혼자 살고 싶다는 응답률이 93.2%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 자녀에 대한 의존성은 매우 낮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노후정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노

후 건강보호와 장기요양보장이 43.5%로 가장 높으며, 소득보장 32.9%, 노년기 고용연장 및 기회확대 17.3%로 나타났다.

이러한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을 살펴볼 때, 현재 노인의 가치관과 특성을 일부 지니고 있으면서도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욕구와 자원이 상대적으로 높고, 사회참여 의지가 높으며, 자립적인 삶을 추구하고, 현재 노인에 비해 자신의 노후준비와 만성질환과 같은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2) 뉴시니어의 등장과 특성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시작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성향을 가진 신세대 고령인구인 뉴시니어가 등장하였다. 삼성경제연구소(2011)⁵⁾에 따르면, 이들은 건강하고 여유 있는 자산을 보유하고, 적극적인 소비 의욕을 가진 한국의 전후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화 시대의 새로운 소비계층으로 등장하게 되었고, 이들 50대 베이비붐 세대는 종전 시니어 세대와는 다른 소비 행태를 보인다는 점에서 '뉴시니어(New Senior)'로 지칭하였다. 베이비붐 세대가 인구사회적 관점에서 본 것이라면, 뉴시니어는 고령친화 비즈니스 측면에서 부각된 용어라고 볼 수 있다.

삼성경제연구소(2011)는 뉴시니어의 특성을 대표하는 3대 키워드로 '젊음', '향수', '자아' 등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젊음'은 '100세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오랫동안 '젊은 청년'으로 살고 싶은 욕구가 뉴시니어의 소비, 여가 활동의 주요 동기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둘째, '향수'는 경제성장기 동안 억제되었던 문화 향유 욕구가 은퇴 이후 촉발되면서 과거의 문화와 가치, 감성을 담은 콘텐츠를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에 기인한 것이다. 셋째, '자아'는 강좌, 학습, 여가 활동이 확산되고, 삶의 단계 변화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교류의 장으로 동호회를 비롯한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는 것에서 기인한 것이다.

베이비붐 세대가 주축이 된 뉴시니어는 최근 본격적인 은퇴를 맞아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되었으며, 안정적인 자산과 풍부한 소비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통계청(2010) 가계금융조사에 의하면 2010년 가구주 연령대에 따른 가계금융 항목에서 50대 가구의 자산 총액이 가장 크며, 전 가구 중 소비지출 비중은 22.5%로 추산된다. 그리고 50-59세 인구가 계속 증가하여 2030년에는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어 뉴시니어의 시장 영향력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다양한 대중문화의 유입과 진화, 경제·사회적 성장을 동시에 경험한 뉴시니어는 이전 시니어 층과는 상이한 문화·사회적 배경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여 감성이 발달하고 문화향유 욕구가 강하며 성취를 중시하고 학습의지가 높아 자기개발 욕구가 강한 특성을 나타낸다. 그러나 은퇴, 가정구성 변화(자녀의 독립 등), 중년과 노년의 과도기라는 삶의 단계에서 비롯되는 불안감도 갖고 있으며, 정년을 맞은 여유, 사회적 교류 욕구, 건강에 대한 갈구 등 시니어 세대가 느끼는 보편적 정서도 공유하고 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뉴시니어란 용어가 주로 비즈니스 관점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이들의 소비 특성에서도 현재 노년층과 구별되기 때문이다. <표 3>과 같이 현재 노년층에 비해 뉴시니어는 훨씬 적극적이며 주도적인 소비성향을 보이며, 노화에 대한 긍정적 관점과 다양하고 창의적인 라이프스타일을 갖고 있음을 볼 수 있다.

5) 삼성경제연구소(2011). "뉴시니어 세대의 3대 키워드," SERI 경영 노트, 96. 1-12.

<표 3> 현재 노년층과 미래노년층(뉴시니어)의 소비형태 변화

구분	현재의 노년층의 소비형태	미래의 노년층의 소비형태
유형 구분	소극적 수용형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	적극적 대처형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
노화에 대한 태도	인생의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하고 체념적으로 받아들임	새로운 삶의 시작으로 받아들임
감정상태	상실감, 좌절감	충족감
이전 생애단계와의 관계	단절감	지속감
소비형태	새로운 시도보다는 현재의 즐거움에 만족	다양한 관심과 재미의 추구
주요 관심대상	건강보조식품	여행과 스포츠
소비행위	자녀가 대신 구매	본인이 직접 구매

출처 : 장미혜(2005),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미래 문화소비구조 예측 및 대안, 심포지엄 자료집 재인용.

한편, 정경희 등(2010b)는 전후 세대와 베이비 붐 세대를 묶어서 신노년층(뉴시니어)으로 규정하고 신노년층의 특징을 여섯 가지로 요약하였다. 첫째, 뉴시니어는 가용한(available) 가족의 규모가 감소하여 핵가족화가 보편화되었다. 둘째, 뉴시니어는 교육수준이 급격히 증가로 현 노인세대와는 다른 가치관의 변화와 기대하는 욕구 수준 및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셋째, 뉴시니어는 현 노인세대들과는 달리 새로운 취미활동을 모색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소비활동을 하며, 여가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넷째, 뉴시니어는 자원봉사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다섯째, 뉴시니어는 현 세대 노인과 마찬가지로 노후 생활에 있어 경제활동을 중요시 하고 있다. 여섯째, 이들은 자신의 성공적인 노후생활에 있어 건강과 소득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뉴시니어의 특징에 근거하여 정경희 등(2010b)은 현 노인세대와 다른 특징을 갖는 뉴시니어의 출현에 따른 효과적인 고령화 대책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은 패러다임의 변화와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첫째, 경제적인 생산성만을 강조하는 정책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회적 생산성을 포함하는 포괄적 생산성을 강조하는 패러다임이다. 둘째, 가족생활에 요구되는 시간, 훈련 및 교육의 시간, 자원봉사 시간 등을 인생에 걸쳐 수행할 수 있도록 일과 생활의 양립 및 균형을 통한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일과 가정의 양립 패러다임이다. 셋째, 과거의 연령분리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상이한 연령층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연령통합적 사회 패러다임이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 속에 뉴시니어의 성공적 노화 기반 조성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의 수행이 요구된다. 첫째, 뉴시니어의 생산성 유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으로 뉴시니어의 은퇴에 따른 숙련단절 완화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과 직무능력에 따른 임금체제로 전환, 그리고 지속적인 자기개발을 위한 평생교육 체계 구축 및 자원봉사의 활성화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합리적이며 체계적인 노후소득 준비가 가능한 정책적 대안 마련을 위해 개인연금, 퇴직연금의 활성화 등의 제도적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다각적인 사회참여 활성화 정책으로 뉴시니어의 다양한 욕구에 상응하는 다양한 여가활동 기회 제공 및 프로그램의 질적 제고가 요구된다. 넷째, 의료비 지출 감소를 위한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III. 뉴시니어와 사회참여

1. 고령자의 사회참여의 이해

1) 사회참여의 정의

사회참여(social participation)는 시민적 관여(civic engagement), 사회적 관여(social engagement), 지역사회 관여(community engagement), 사회적 통합(social integration) 등의 용어와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된다. 윤종주(1994)는 사회참여를 개인 차원에서의 경제활동, 사회봉사, 지역사회활동, 그 외에 정치 및 종교 활동과 같은 여러 형태의 사회활동으로 정의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전국노인실태조사에서는 노인의 사회참여를 경제활동, 자원봉사, 단체활동, 여가문화 참여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정경희 외, 2012), 김수영 등(2015)은 사회참여에 대한 개념을 광의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활동으로 보고, 사회참여란 일, 자원봉사, 친목활동, 취미 및 여가활동, 종교활동, 교육활동, 정치활동 등 공식적 및 비공식적 특성과 개별적 및 사회적(집단적) 특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소정(2013)은 사회참여를 협의적 차원에서 집단의 공동 목적을 달성하는 사회적 활동만을 의미하는 반면, 광의에서는 집단의 목적과 개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까지도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2) 고령자의 사회참여의 의의와 효과

고령자에게 있어서 '사회참여'는 활동적 노화를 추구하는 수단이며, 고령자들은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통해 소득을 확보하고, 신체적·심리적 건강을 증진시키며, 사회적 관계망을 확대하는 등 노년기의 삶의 질을 유지 또는 향상시키게 된다(김수영 등, 2015). 사회참여는 활동이론에 기반한 것으로 고령자의 적극적인 활동은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노년기의 적응수준을 높이며, 노년기의 사회적 역할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긍정적 자아개념(self-concept)을 형성시켜 준다(Hooyman & Kiyak, 2011). 또한, Leitner와 Leitner(2012)는 사회참여를 통해, 신체적 건강의 증진, 사회적 접촉기회의 제공, 노후 삶에 대한 사기 및 만족감 증진, 자신에 대한 신념과 자기 신체에 대한 자신감 부여, 자기유용감과 자기가치성의 확인, 재미있고 즐거운 삶 등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노년기 사회참여는 개인적으로는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하고 인지능력의 향상과 정서적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며, 사회적으로는 고령자가 중요한 사회적 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Hinterlong & Williamson, 2014; Johnson & Mutchler, 2014). 그리고 고령자의 사회참여의 대표적 유형인 노인사회활동사업에 참여한 고령자의 변화를 종단적으로 조사한 김수영 등(2015)의 연구에서 노인사회활동사업에 2년간 지속적으로 참여한 고령자들에게서 생활만족도, 우울증상, 사회적지지 등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사업 참여 후 건강행위, 일상생활, 사회적 관계, 대인관계 등에서도 긍정적 변화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차원에서의 노후준비도도 향상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처럼 고령자의 사회참여는 긍정적 자아개념의 형성과 함께 삶의 만족과 같은 심리정서적 만족과 정신 건강 증진, 타인과의 상호작용 향상,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통한 사회적 지지체계 형성, 그리고 사회적 기여 등 다양

한 영향과 효과를 가지므로 고령사회에서 고령자의 사회참여는 고령자 개인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3) WHO의 활동적 노화를 위한 고령자의 사회참여의 정책 방향

고령자의 사회참여와 관련하여 세계보건기구(WHO, 2002)는 활동적 노화를 위한 세 가지 하위 영역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전 생애를 통해 교육 및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기초 교육(basic education)과 건강정보 이해능력(health literacy)과 같은 교육을 통해 노인이 스스로 또는 서로 돌볼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으며, 건강 및 지역사회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켜 준다. 또한 평생학습은 노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게 한다. 둘째로 개별 노인의 욕구, 선호, 능력에 따라서 적합한 경제 성장 활동, 공식(formal) 및 비공식적(informal) 일, 자원봉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인정해주고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빈곤감소를 위한 사회 정책적 노력의 계획, 실행, 평가 등에 노인을 참여시키며, 노인에게도 젊은 세대와 동일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로 노인이 고령화 되어가도, 개별노인이 지속적으로 가정 및 지역사회 삶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중교통(transportation), 리더십, 모든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사회환경(a society for all),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a positive image of aging),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불평등 완화, 노년층을 대표하는 조직 지원 등이 필요하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 2002)는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으로, ‘고령친화적 사회참여를 위한 점검항목’과 ‘고령친화적인 시민참여와 고용을 위한 점검항목’을 제안하고 있다.

〈표 4〉 WHO가 제안하는 고령자의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점검항목 가이드라인

고령친화적 사회참여를 위한 점검항목	
행사와 활동의 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지에서 근접한 거리에 있고 다양하고 저렴한 교통수단이 있다. - 친구나 보호자를 동반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 노년층이 참여하기 편한 시간대의 프로그램이 편성되어 있다. - 참여기회가 개방적이며(가령 입회요건이 전혀 없는 등) 매표 절차가 신속하고 단일화되어 노년층이 오랫동안 줄을 서는 일이 없다.
저렴한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행사나 활동, 지역사회 축제의 참가비용이 저렴하고 또 교통비 같은 추가비용이 없다.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차원에서 자원봉사 기구들이 적극적으로 후원한다.
행사와 활동에 대한 폭넓은 선택 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연령층의 관심과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선택의 기회가 폭넓다. - 지역사회 활동 내용이 다양한 문화와 배경, 연령층 사람들의 참여를 권장한다.
시설과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년층 모임은 주거지 근처나 공원에 있는 지역사회회관, 여가센터, 학교, 도서관 등 다양한 곳에서 이뤄진다. - 시설은 장애 노년층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년층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프로그램 홍보와 장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행사와 활동에 관한 프로그램 및 교통편, 가는 길 등에 대해 노년층에게 충분히 전달한다.

소외 노년층 대처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초대장을 발송하여 참여를 권유한다. - 행사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글을 읽는 등의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다. - 참가를 중단한 클럽 회원에게는 탈퇴하지 않는 이상 지속적으로 메일과 전화 등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 단체에서는 개별 방문이나 전화통화를 통해 소외된 노년층에게 참여를 권유한다.
공동체 통합의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관심사와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지역 사회 시설을 여러 목적을 위해 공유함으로써 사용자들간에 상호교류를 높인다. - 모임과 활동을 통해 지역주민 간 교류와 친밀감이 증진된다.
고령친화적인 시민참여와 고용을 위한 점검항목	
자원봉사 선택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 기회가 다양하다. - 자원봉사기구들은 인프라와 교육프로그램, 자원봉사 인력 등을 갖추며 체계적으로 발전되었다. - 기술과 역량, 관심에 따라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배정된다.(데이터베이스 및 등록소 마련가 마련되었다.) - 교통 및 주차비 등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이 지급된다.
고용 선택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년층에게 폭넓은 취업기회가 주어진다. - 나이차별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과 법적 제도가 있다. - 퇴직은 강제가 아니라 선택이다. - 시간대와 주기를 조정하는 등 노년층을 배려한 노동환경이 제공된다. - 노년층을 위한 고용 프로그램 및 대행사가 마련되었다. - 노년층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노동조합 같은 피고용인 기구 주최로 단시간제 근무나 유급 자원봉사 등 유연한 정책들이 마련되었다. - 노령인력 고용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주를 독려한다.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퇴한 노년층에게 교육기회가 제공된다. - 신기술을 배울 수 있는 재교육 기회가 주어진다. - 자원봉사기구들 주최로 각자 역할에 따른 교육과정이 제공된다.
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급이든 유급이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널리 홍보된다. - 편리한 교통수단이 마련되어 있다. - 장애인에게 적합한 작업시설이 마련되었다. - 보수든 무보수든 노동참여에 따른 비용 부담이 없다. - 재정지원, 보험료 인하 등 노령인력 고용과 훈련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시민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문기관이나 이사회 등에 노년층이 참여한다. - 노년층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인지정석,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보청기 및 편리한 교통수단을 마련한다. - 복지정책이나 복지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노년층의 의견을 수렴한다. - 노년층의 사회참여를 적극 권장한다.
사회 기여 존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년층의 사회 기여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 고용 주최측에서 노년층의 필요성을 충분히 참작한다. - 노령인력 고용에 따른 혜택을 고용주에게 널리 홍보한다.

창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년층에게 창업 및 자영업 운영의 기회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농작물과 수예품 판매장, 노년층을 위한 소액금융서비스, 소기업운영 교육기회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소규모 재택 사업에 대한 정보를 노년층에게 적합한 형태로 제공한다.
창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령이라는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자원봉사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한다. -노동의 대가를, 연금을 비롯한 노년층 지원금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2. 뉴시니어의 사회참여에 관한 노년학적 관점

정부가 노인의 빈곤을 해소하고 보충하는 정책으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내놓았고, 질병의 치료와 수발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시행하였다. 고독을 해소하기 위한 시책으로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활성화 사업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무위의 대책으로는 노인사회활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재열(2008)은 이러한 고령화 문제 대응 방식에 문제를 제기한다. 고령화사회를 거쳐 고령사회를 눈 앞에 둔 시점에서 고령자를 수혜자로서만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지속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삶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했다는 것이다. 그동안의 수동적인 수혜자로서의 노년기가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시기가 되도록 전환하여야 하며, 고령자의 사회참여를 위한 고령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고령자 스스로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고 발휘하여 사회에 공헌하는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사회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뉴시니어와 관련하여 2000년대부터 신노년에 대한 담론이 시작된다. 신노년 담론은 기존의 의존적이고 부정적인 노년상(老年像)에 대항하여 노인의 잠재력 개발과 문제 예방을 강조함으로써 노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재구성된 담론이다(최희경, 2010). 이 신노년 담론과 관련한 대표적 노화이론이 활동적 노화(active aging),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ing) 이론이다. 이러한 새로운 노화이론적 관점은 현대 사회로 진입하면서 과거의 노인세대와는 다른 활동적이며 사회참여의 관심과 욕구가 높고 뒤로 물러나는 노년기가 아닌 보다 주체적이며 능동적으로 자신의 노후의 삶을 설계하고 조정해 나가는 새로운 노년 세대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보통의 노화(normal aging)에서 최적의 노화(optimal aging)로 나아가고자 하는 성공적 노화 이론을 비롯하여 활동적 노화, 생산적 노화, 창조적 노화, 자립적 노화 등 적극적 노화 개념에 기초한 노인 정책과 교육 및 복지 체계가 적용되어왔다. 이러한 노년기의 변화를 나타내는 시대를 가리켜 ‘신노년 시대’(New Aging)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신노년 시대는 고령자에 대한 긍정적 인식 변화,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대, 의존에서 자립적인 삶의 추구, 활동적 노년으로의 전환 등의 특징을 갖는다.

1)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ing)

과거 노후생활과 관련한 연구들은 주로 산업 사회 이후 대두되는 빈곤, 질병, 고독, 무위로 대표되는 노인 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이러한 관점은 노년기와 노인에 대한 이해가 지나치게 수동적이고 부정적이어서 노인의 역량을 약화시키는 위험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경제능력과 활동능력을 가진 노인

의 수가 늘어나고 노인의 세력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고령화 사회에서는 과거의 문제 중심적 관점을 넘어선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이며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노인 연구의 접근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성공적 노화에 대한 논의가 출발하게 되었다. 성공적 노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되면서 수많은 학자들이 성공적 노화의 개념과 영향 변인들에 대한 연구를 발전시켜왔다.

성공적 노화는 낙관적인, 긍정적인, 생산적인, 풍요로운, 새로운, 확신하는 노화 등의 여러 가지 개념으로 언급되어 왔으며(조혜경, 2002), 잘 늙어가기와 같은 의미로도 혼용되어 왔다. 또한 정상적인 노화, 병리적인 노화와 비교하여 성공적인 노화는 오래 살고, 생산적이며 만족한 삶을 살면서 늙어가는 개인의 특성을 말하는 개념이다. 세계보건기구(WHO, 1998)는 성공적 노화를 좋은 신체적(기능상태), 정신적(정서적, 인지적 상태) 및 사회적 건강(생산적 참여)으로 정의한 바 있다.

대표적인 성공적 노화 이론으로는 Rowe와 Kahn(1998)의 ‘적극적 사회참여 모델’이 있다. Rowe와 Kahn(1998)은 성공적 노화는 보통의 노화(usual aging)와는 다름을 주장하면서 성공적 노화를 위한 세 가지 요소를 제시하였다. 그것은 낮은 질병률 및 질병에 의한 장애위험 피해가, 높은 수준의 정신적 기능과 신체적 기능 유지하기, 그리고 적극적인 인생참여 등인데, 이 중에서 적극적인 인생참여야말로 성공적인 노화를 가능케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다. 이는 이전의 노인관련 연구들이 초점을 맞춘 신체적 건강의 노화중심 개념에서 탈피하여 성공적 노화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기능 수준과 적응 수준이 높아서 삶의 만족이 높은 상태라는 개념으로 확대한 것이다. 한편, Baltes와 Baltes(1991)는 전생애 발달 관점에서 연령에 따른 손실 및 성취, 발달적 유연성을 고려한 개인 생애(life span)적 모델인 ‘선택·최적화·보상 모델’을 개발하였다.

국내에서도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하여 성공적 노화의 개념과 구성요인, 그리고 영향 변인과 적용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왔으며, 한국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성공적 노후 척도(김미혜·신경림, 2005; 김동배, 2008) 및 성공적 노화 전략 척도(손의성, 2010)가 개발되기도 했다. 한국 노인들이 정의하는 성공적 노화를 최혜경(2008)은 “건강하고 경제적인 안정을 이루고 있으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심리적 평안을 이루고, 자녀들이 잘 살고 있으며 타인에게 신세를 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으며, 김미혜와 신경림(2005)은 ‘자기효능감을 느끼는 삶’, ‘자녀 성공을 통해 만족하는 삶’, ‘부부간의 동반자적 삶’, 그리고 ‘자기통제를 잘하는 삶’을 한국노인의 성공적 노후 구성개념으로 제시하였고, 김동배(2008)는 ‘자율적 삶’, ‘자기완성 지향’, ‘적극적 인생 참여’, ‘자녀에 대한 만족’, ‘자기 수용’, 그리고 ‘타인 수용’을 성공적 노후의 구성개념으로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성공적 노화 관점이 특히 강조하는 것은 뉴시니어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것은 바로 뉴시니어 자신이라는 점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정부나 지자체의 고령화 해결 노력을 폄하하거나 축소해서는 안될 것이다. 성공적 노화 관점은 뉴시니어들이 보다 적극적이며 주도적으로 자신을 위해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해준다. 왜냐하면 성공적 노화 이론은 신노년 시대에 뉴시니어로 하여금 고령자를 실패자로만 규정하는 이전의 실패자모델로부터 벗어나 보다 긍정적인 노화 모델의 관점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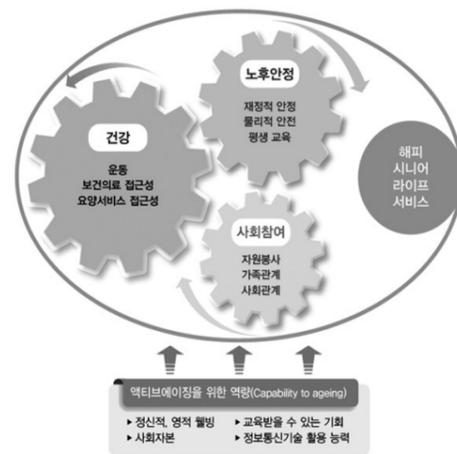
2) 활동적 노화(Active Aging)

활동적 노화는 1세대 노화이론인 활동이론(activity theory)에 기반하고 있다. 활동이론은 한 것으로, 노년에 접

어드는 개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역할의 제공이 많으면 많을수록, 개개인은 통상 젊은 시절 우선적으로 주어졌던 필수적 역할로부터 물러남으로써 겪게 되는 사기저하를 잘 견뎌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한다(Blau, 1973). 따라서 노년기에 들어서도 중장년 시절처럼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잃어버린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역할을 찾아야 하며, 이와 같은 지속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성공적인 노년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본다.

활동적 노화는 이러한 활동이론의 개념을 발전시켜 개인 차원은 물론 사회적 차원까지 확대한 개념이다. 활동적 노화는 세계보건기구(WHO, 2002: 12)는 2002년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제2차 세계고령화 회의에서 지구촌이 직면한 인구고령화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한 개념으로, “연령증가에 따라 건강, 사회참여, 생활보장의 기회를 극대화함으로써 삶의 질을 증진”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고령자가 자신의 가족과 지역사회와 경제에 지속적인 자원이 되는데 목표를 두는 것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활동적(active)”이란 말의 의미는 단지 육체적으로 활동적이거나 노동에 참여하는 능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 영적, 시민 활동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건강’, ‘안전한 노후’, ‘사회참여’ 등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며, 활동적 노화를 위한 고령자의 기본적인 역량으로 정신적·영적 웰빙, 사회자본,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 등이 제시되어 고령자의 삶을 포괄하는 전인적 차원을 강조하고 있으며, 고령자의 사회참여 개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림 9> 활동적 노화의 영역 및 역량



활동적 노화는 노년기의 적극적 사회참여가 핵심적 개념으로 성공적 노화와 생산적 노화를 평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뿐 아니라, 고령자를 의존적 존재로 여기는 고착된 부정적 인식 대신에 이들을 생산적인 대상으로 새롭게 재인식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된 개념으로 성공적 노화와 생산적 노화라는 유사한 개념적 논의를 촉발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활동적 노화는 생산적 노화의 초점인 경제영역을 포함해서 사회, 문화, 시민 활동 등 고령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포괄적인 사회참여 영역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김수영 등, 2013).

3) 뉴시니어의 사회참여를 위한 정부의 정책

뉴시니어로 불리우는 베이비붐 세대와 고령자의 사회참여를 위한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다. 따라서 제3차 기본계획(2016-2020)에서 제시된 사회참여 정책을 간단히 제시하였다.

제3차 기본계획 중 2번째 추진방안이 “고령자 사회참여 기회 확대”이다. 이를 위한 세부전략은 다음과 같다.

- 고령세대의 여가 기회 확대
 -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확대 운영('16~)
 - 전 생애 문화예술교육으로 문화경험 기회 확대
- 고령친화형 콘텐츠 개발
 - 노인 맞춤형 여가문화 콘텐츠 지원 방안 마련('16)
 - 노인 맞춤형 여가 교육 및 체험형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고령자 여가실태 조사 실시('16)
- 고령자 문화·여가 인프라 개선
 - 노인 개인(건강상태, 사회참여도) 및 지역별(대도시, 중소도시, 도농복합, 농어촌) 특성 등을 반영하여 노인복지관 표준운영모델 개발·확산('16~)
 - 노인이용시설 대상 지역유형, 대상자, 기능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확대('16)
- 고령자 자원봉사지원체계 강화
 - 소규모 단체 발굴·지원*, 공무원·전문직 은퇴자 참여 활성화, 기업의 은퇴자 연계 사회공헌 지원 강화 등 고령자 자원봉사 참여 확산('16~)
 - 참여고령자 자원봉사실적의 상시관리, 자원봉사 실태조사 등을 위한 고령자 자원봉사 통합관리체계 구축('17)
 - 일반인과 교류하는 노인자원봉사 대축제 개최를 통해 고령화시대 ‘활동하는 新노인상’ 정립('16~)
- 고령자 사회활동지원사업의 공익활동 내실화
 - 공익활동 등을 하고 싶어 하는 노인에게 더 많은 참여기회 제공
 - 독거노인 등 취약노인을 보살피는 老老케어 등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전국형 활동을 지속 확대('16~)
 - (재능나눔) 자격·특기 등 재능이 있는 기초연금 미수급 노인(10만원 미만 포함)이 취약노인 발굴·상담 등 노인 권익증진활동에 참여(월 10시간 이상)할 경우 6개월간 활동실비(중식비 등)로 월 20만원을 지원('15년 3.7만명)
- 고령자 교육 기반 확충
 - 노인대학, 평생교육원 등 유관기관 연계체계 구축으로 고령자 교육기반 강화
 -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활성화('16~) : 어르신 IT 봉사단, 독거노인 가정 방문 정보화 교육 실시, 컴퓨터 관련 자격증 취득분야 등 실용과정 교육, 노인 이용시설(경로당·마을회관 등) 방문을 통한 건강·여가프로그램 교육 지원, 경로당 활성화지원사업 지원, 생활터전 건강서비스 지원, Well-dying 교육, 자살예방교육 등 확대

- 계층별 맞춤형 평생교육 활성화
 - 문해 교육 확충 등 중졸 이하 저학력 성인계층 평생교육 강화
 - 다문화·경력단절여성·베이비부머 등을 대상 지자체·대학의 맞춤형 특화프로그램 확충 으로 인생 이모작 지원(16~)
 - 평생학습도시, 행복학습센터의 실버세대 특화프로그램 운영 활성화(16~)
- 시도-시군구-읍면동까지 연계된 국가 평생교육진흥 추진체제
 - 시도 평생교육정보망 전체 시도 확산 및 국가평생학습포털(늘배움) 연계 추진(16~)
 - 시군구-지역내 기업·대학이 협업하여 운영하는 평생학습도시 확대
 - 읍면동 단위 행복학습센터 확대 운영

IV. 뉴시니어의 사회참여를 위한 교회의 역할

1. 교회의 뉴시니어 사역의 필요성

교회가 고령화 속에서 뉴시니어 사역을 감당해야 할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회의 고령화 현상 때문이다. 주교회의가 최근 발표한 ‘2012 한국 천주교회 통계’⁶⁾에 나타난 교세 현황에 따르면, 고령화된 한국교회 현실을 잘 보여준다. 2012년 말 현재 60세 이상 어르신 신자 수는 113만 2486명으로 19세 이하 청소년 신자(67만 3344명)의 1.7배에 이른다.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청소년·어르신 신자 수 추이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 신자는 10년 동안 24.3% 줄어든 반면 어르신 신자는 91.1% 늘어났다. 특히 80세 이상 초고령 신자는 20만 8274명으로 2003년(8만 8972명)에 비해 134% 증가했다. 아동·청소년인 10~19세 신자는 41만 9198명으로 전체의 7.4%인데 반해, 65세 이상 노인 신자는 96만 1684명으로 전 신자의 17.0%에 해당한다. 이는 이 시기 한국 전체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1.8%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치이다. 아동과 청소년 및 청년의 감소 비율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감안할 때 갈수록 한국사회보다 훨씬 심각한 고령화를 경험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천주교회의 교세 통계이지만 종교 교세통계(문화체육관광부, 2011)에 나타난 2005년 개신교회와 천주교회의 65세 이상 고령화율이 동일하게 9%인 것을 고려할 때, 개신교회도 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뉴시니어의 연령대로 볼 수 있는 50-64세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뉴시니어 사역에 따라 향후 한국교회의 고령화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도 아닐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둘째, 고령화가 한국교회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회는 최근 한국 사회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인수는 물론 신학교 지망생 감소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는 2008년부터 6년 동안 4차례에 걸쳐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를 측정했다.⁷⁾ 한국교회의 신뢰 지수는 2008년 18.4%, 2009년 19.1%, 2010년 17.6%로 나타났다. 3년 만에 실시한 2013년 조사에서 신뢰도

6) http://www.pbc.co.kr/CMS/newspaper/view_body.php?cid=628742&path=201604

7) <http://cemk.org/> 자료실.

가 2010년에 비해 1.8%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냈다. 종교 간 신뢰도 비교에서 기독교는 3대 종단 가운데서 이번에도 꼴찌를 기록했다. 가장 신뢰하는 종교에 가톨릭 29.2%, 불교 28%, 기독교 21.3% 순으로 답했다. 향후 한국사회의 가장 큰 화두는 고령화이다. 한국교회가 이 고령화 쇼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교회의 존립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뉴시니어를 잘 이해하고 그들의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면 21세기 교회는 고령화 물결(Age Wave)이 충격(shock)이 아닌 기회(opportunity)가 될 것이다. 뉴시니어는 단순히 우리가 필요를 채워줘야 하는 또 하나의 원조대상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대부분의 새로운 시니어들은 교회에 엄청난 자원들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뉴시니어들이 지역 교회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이들을 위한 사역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Gallagher, 2006: 7). 반면에 요동치는 고령화 물결 속에서 만약 교회가 시니어들에 대한 사역을 소홀히 하게 된다면, 엄청난 비극적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Houston, 2011: 32).

셋째, 고령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과 자원이 교회에 있기 때문이다. 이 사회는 교회보다 일찍 뉴시니어 사역에 대한 대비를 시작하긴 했지만 여전히 수요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 서울과 수도권에 50플러스재단과 50플러스센터를 운영하여 베이비붐 세대를 비롯하여 50-64세 시니어들을 위한 일자리나 생애재설계 및 사회공헌활동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제 2년 남짓한 역사를 갖고 있는데도 현재 50플러스캠퍼스와 50플러스센터 각 3개소만 최근에 설립되어 있어서 베이비붐 세대와 50플러스 시니어들의 수요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의 서비스만 제공되어 있다. 베이비붐 세대를 고려한 정부 정책도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수립된 2011년부터 출발하였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이미 1970년대부터 시작된 노인대학이 많은 교회와 기독교단체에서 설립·운영하고 있어서 뉴시니어 사역을 전개하기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비록 교회의 대부분의 시니어 사역 프로그램의 시대에 조금 뒤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여전히 고령사회의 가시적이고 핵심적인 주체이다(Houston, 2011: 39). 지금까지 교회는 교회 성장이나 제자훈련, 기독교교육, 선교훈련 등의 사역을 위한 교육과 훈련에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실질적으로 시니어 사역을 위한 지도자 양성 훈련 프로그램은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빈약하다. 일부 교회에서 노인대학(경로대학) 교사들을 위한 1회성 단기 세미나에 참석하기도 하지만 그 비율이 매우 적도 오늘날의 뉴시니어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뉴시니어 사역을 시작한다면 한국교회와 사회에 매우 큰 긍정적 반향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넷째, 교회가 가진 영적 역량이 고령화 대응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WHO(2002)의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의 활동적 노화의 기본 역량 중 하나인 영적 웰빙은 반드시 종교적 차원에만 머무르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핵심 사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활동적 노화의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영적 웰빙은 노년기의 발달과업인 자아통합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Westgate(1996)는 “영성이란 자신을 초월하여 개인의 완전성을 추구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내적 가치에 근거하여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 동시에 영성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심리적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영성의 개념은 자아통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동시에 노년기를 부정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보다 긍정적이고 주도적으로 대처하려는 정신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기독교와 교회는 뉴시니어의 성공적 노후와 활동적 노후를 영위하도록 도울 수 있다. 웰다잉법이 제정되는 오늘

날 영성은 누구나 경험하는 죽음과 질병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돕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보다 활동적인 노화와 적극적인 사회참여에도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영성은 현실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신이 부여한 삶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장로교(PCUSA)는 교단총회 및 노회 그리고 개교회가 시니어 사역을 감당해야 할 필요성의 근거에 대해 노회 시니어 사역 매뉴얼에서 다음과 같이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Congregational Ministries Division PCUSA, 2003: 17-18).

-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인구 구조의 변화
- 모든 교회가 보유하고 있는 시니어들을 위한 풍부한 자원
- 만성질환으로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신앙공동체의 지원의 필요성
- 태어나서 죽기까지 모든 삶의 단계와 과정에 대한 문제를 이해하도록 도울 필요성
- 시니어 사역에 대한 성경의 위임(시편 71:18)
- 교단총회에 위임된 시니어 사역의 책임
- 젊은 세대를 위한 긍정적인 노화 모델 제시의 필요성
- 시니어 사역을 감당해야 할 교회 목회자들에 대한 훈련의 필요성
- 신체적, 인지적 기능 제한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신앙공동체의 도움의 필요성
- 고령 인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젊은 세대에 대한 교회의 지속적인 관심의 필요성
- 교회 재정의 중요한 기여자인 시니어 교인의 헌신과 지원
- 연령주의와 연령차별을 경험하는 시니어들에 대한 옹호의 필요성
- 고령화로 교회를 출석하지 못하는 시니어들이 증가하는 시대 속에서 우선적 복음의 현장로서의 시니어 사역의 필요성
- 100세 시대의 교회 사역 모델의 부재(不在)
- 지난 30년 간 많은 교단들 중 선도적으로 시니어 사역을 감당해 온 교단(PCUSA)의 리더로서의 책무 등.

2. 교회의 뉴시니어 사역을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

1) 뉴시니어에 대한 인식 전환

교회가 뉴시니어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시니어 혹은 노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사실상 뉴시니어 사역의 첫 번째 걸림돌이 시니어와 노화에 대한 편견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모든 사람들이 같은 모습으로 늙어갈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 또한 근거 없는 믿음이다. 은퇴를 하면 이제 뒤로 물러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편견도 버려야 한다. 오늘 날의 시니어들은 예전에 비해 훨씬 더 오래 살고, 보다 활동적이며, 창의적이다. 은퇴 이후에 보내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인생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데, 이 시기 중 상당 부분은 활력이 넘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다.

과거에는 시니어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간주되었지만, 오늘날의 시니어들은 도움을 베푸는 존재로 여겨지게 될 것이다. 비록 시니어들이 나중에 도움을 받아야 할 상황이 닥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오늘날의 시니어들은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기가 이전보다 훨씬 늦게 다가올 것이다. 이제는 시니어에 대한 과거의 편견을 철회하고, 활동적이고 생기가 넘치며 성숙된 시니어들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은퇴를 단순히 여유시간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배우고 봉사하며 인생이모작을 계획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보다 더 활동적이며 흥미진진한 삶을 살기 위해 몰두할 수 있는 기회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시니어들은 전문성과 기술이 풍부하다.

Arn과 Arn(1999: 19)은 시니어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명확히 구분해주고 있다. 구 패러다임의 수혜자와 수동적이며 단순한 욕구를 가진 세대로 묘사되고 있으나, 새 패러다임에서는 제공자와 다양한 욕구를 가지며 적극적이고 봉사를 즐기는 세대로 묘사되고 있다. 상징적 상호작용주의적 관점에서 시니어 및 노인 세대와 나머지 교인 세대가 모두 새로운 고령화 패러다임을 갖지 못하면 서로 서로 혹은 스스로를 제한하는 부정적인 노년 자아상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 노화 관점으로는 효과적인 뉴시니어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표 5〉 시니어와 노인에 대한 인식 패러다임의 변화

구분	구 패러다임	새 패러다임
시니어/노인	봉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	봉사를 제공하는 사람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
	다른 노인에게 무관심	국내외 노인들과 교류
	전통적 노인의 태도와 편견 소유	신노년의 태도
	노인 집단 및 프로그램의 단일성	노인 집단 및 프로그램의 다차원성
	은퇴 목적 : 즐기 위해(여가중심)	은퇴 목적: 일, 배움, 봉사, 여가

뉴시니어는 단순히 생물학적 나이나 범주로 대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21세기의 뉴시니어들은 태도와 생활방식의 특성과 더 많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뉴시니어들은 스스로를 늙었다거나 고령자로 간주하지 않으며, 자신들을 생기가 있고 활기차며 활동적인 존재로 간주하고,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존재로 인식한다. 이러한 뉴시니어 상(像)을 교회 공동체에 형성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시니어 전문목회자인 Gallagher(2006: 13-25)는 교회가 시니어 사역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적인 시니어의 특징을 15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 ① 시니어들은 창의적 가르침을 선호한다 시니어들은 전통적인 예배를 좋아하면서도, 창의적이고 다양한 생각을 유발하는 토론과 참여를 선호한다. 시니어들은 안정적이고 충실한 신앙을 선호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변

화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도 갖고 있다.

- ② 시니어들은 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을 좋아하며, 따뜻하고 다정스러우며 배려가 넘치는 교회 구성원들을 필요로 한다.
- ③ 시니어들은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사역에 헌신하기를 좋아한다. 시니어들은 헌신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만약 시니어가 가치 있는 사역이나 목표 혹은 헌신의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면, 그들은 항상 긍정적으로 응답할 것이다.
- ④ 시니어들은 배려 깊은 목회자와 사역자들을 좋아한다.
- ⑤ 시니어들은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좋아한다. 그들은 새로움과 도전을 즐기지만, 그들의 인식의 바탕에는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자리 잡고 있다.
- ⑥ 시니어들은 믿음과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한다.
- ⑦ 시니어들은 권위와 자신들의 풍부한 삶의 유산들에 대해 존경을 표하는 것을 좋아하며, 그것들의 가치가 훼손될 때는 슬퍼한다. 시니어들이 권위와 그들의 풍부한 삶의 유산에 대해 존중하는 것을 원한다면 이는 그들이 교회의 권위와 기독교 유산과 기독교적 가치에 대해서도 존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니어들은 자신의 권위나 삶의 유산을 인정해주는 교회의 리더를 돕기를 즐겨할 것이다.
- ⑧ 시니어들은 변화를 받아들이되, 의미 있는 목적이 전제된 점진적 변화를 선호한다. 만약 시니어들에게 있어서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얻고자 한다면,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시간을 들여서 충분한 이해와 수용이 있을 때까지 인내할 필요가 있다. 이때 시니어들의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 당신이 의도하는 변화가 시니어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인지를 먼저 확인해라.
 - 변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신들과 타인들에게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지를 확인해라.
 - 시니어들이 변화에 대한 확신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해라.
 - 시니어들이 지금의 현 상태보다 앞으로 이끌어 낼 변화가 더 낫다고 확신하는 지를 확인해라.
 - 시니어들이 변화의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지를 확인해라.
- ⑨ 시니어들은 그들이 과거에 몸 담았던 기관이나 조직을 선호한다. 시니어들은 자신들이 필요로 할 때 안정적이고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교회공동체를 원하기 때문에 교회는 이들 시니어들의 삶을 잘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돌봄공동체가 되어주어야 한다.
- ⑩ 시니어들은 충성을 보여주기를 좋아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시니어들은 자신들의 결혼생활이나 교회, 클럽, 소속된 조직에 대해 충성을 보이지만 양가감정이 교차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만약 교회가 자신들의 욕구를 채울 수 없다고 느끼게 되면,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다른 신앙공동체를 찾기 시작할 것이다. 따라서 시니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
- ⑪ 시니어들은 봉사하고 섬기며 베풀기를 즐겨한다. 시니어들이 봉사할 수 있는 분야는 셀 수 없이 많다. 교회가 방치한 시니어들이 지역사회 이곳저곳에서 얼마나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 깜짝 놀랄

것이다. 시니어들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조직이나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

- ⑫ 시니어들은 그들의 감정과 경험을 이야기하고 나누길 좋아한다. 시니어들이 자신들의 감정과 경험을 이야기하고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배움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 시니어들이 스스로 성경의 진리를 탐색하고 연구하도록 장려해라.
 - 견해의 차이를 인정하게 해라.
 - 참여하도록 격려해라: 듣기만 하는 일방적인 강의 보다는 시니어들이 직접해볼 수 있는 활동이나 토론을 하게 해라.
 - 실수를 허용해라.
 - 배움에 있어서 협력과 공동작업이 이루어지도록 고려해라.
 - 개방성과 투명성을 권장해라.
 - 시니어들이 자신들이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해라.
 -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장려해라.
 - 시니어들의 삶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두라.
 - 성경의 진리와 삶의 적용이 통합될 수 있도록 해라.
- ⑬ 시니어들은 바쁘게 움직이는 것을 선호한다. 시니어들은 넘치는 에너지를 갖고 있다. 그들이 건강이 허락된다면 활동하기를 원한다. 아주 간단한 활동이라 할지라도 시니어들이 다른 교인들과 함께 계속해서 바쁘게 활동하게 하라.
- ⑭ 시니어들은 단순하면서 관계를 통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공유하기를 좋아한다. 시니어들은 단순하고, 따뜻하며, 개인적인 방식으로 그들의 친구들이나 이웃들과 함께 자신들의 신앙을 나누고 싶어 하게 될 것이다.
- ⑮ 시니어들은 아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좋아한다. 시니어들은 그들의 가족들, 특히 손주들을 몹시 사랑한다. 하지만 부담스럽지 않는 정도의 시간에 한해서이다. 21세의 교회는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 및 청년들을 위한 사역에 시니어들의 풍부한 지혜와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2) 뉴시니어 사역을 위한 교회의 조건

사회는 물론 교회에서도 뉴시니어는 기존 고령자와는 다르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교회 리더들은 뉴시니어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목회사역을 이끌게 됨으로써 마치 구멍이 송송 뚫린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것처럼 뉴시니어들에 대한 사역에 실패하게 되기 쉽다. 이에 대해 Arn(1999; 15-23)은 뉴시니어 목회사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미래지향적 교회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중고령자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진 교회이다. 이러한 교회의 특징은 중고령자, 뉴시니어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교회 환경을 조성하며, 뉴시니어를 위한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가진 여가활동을 제공할 뿐 아니라, 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정보와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 뉴시니어들에 대한 편견과 소외 없이 편안하

게 교회 예배 및 다양한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교회 분위기를 조성한다.

둘째, 은퇴자들이 남은 삶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교회이다. 은퇴자들의 경험과 기술을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삶의 기쁨과 목적 및 성취감을 맛볼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뉴시니어에게 자원봉사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회이다. 뉴시니어는 시간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시간은 남은 삶의 중요한 자산(asset)이기 때문이다. 교회는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된 오랜 역사 속에서 자원봉사를 수행해왔기 때문에 그 전통을 뉴시니어들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

넷째, 사랑과 돌봄, 섬김과 나눔 사역을 최우선순위로 두는 교회이다. 친밀하고 따뜻한 관계는 시니어를 비롯한 모든 연령대를 감동시키며, 사랑과 돌봄은 소외와 고통과 질병을 경험하는 많은 시니어들의 생명줄이 되며, 교회가 이들의 문제를 돕고 섬기는 사역을 통해 노년기에도 소망을 잃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준다.

다섯째, 영적 성장에 대한 관심을 우선순위로 두는 교회이다. 시니어들이 삶의 욕구들이 어느 정도 충족되면 더 높은 욕구, 즉 영적 욕구를 추구하게 된다. 특히 노년기에 경험하게 되는 은퇴나 질병, 사별(죽음) 등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게 될수록 노년의 삶의 의미를 돌아볼 수 있으며, 새로운 삶의 의미와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영적인 성장을 도울 필요가 있다.

여섯째, 중고령자 등 성인을 위한 사역에 우선순위를 두는 교회이다. 대부분의 교회가 아동 및 청소년 사역에 관심을 두는 만큼 중고령자를 위한 사역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뉴시니어에 대한 사역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뉴시니어를 위한 효과적인 사역을 수행할 수 있는 리더십과 사역구조를 마련하는 교회이다. 고령사회에서는 고령자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진 리더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시니어 사역을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리더를 양성해야 하며, 시니어들의 역량을 끌어낼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조직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뉴시니어의 사회참여를 위한 교회의 역할과 과제

교회가 뉴시니어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여 성공적이고 활동적인 노년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감당해야 할 역할과 과제를 다음과 같이 7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1) 조직 및 전달체계

① 조직 : 뉴시니어 사역 개발과 추진 및 협력을 위해 뉴시니어 사역 조직을 구성한다. 교단 총회 차원에서는 뉴시니어 사역 전문위원회, 노회 및 연회 차원에서는 뉴시니어 사역 위원회, 그리고 개교회 차원에서는 시니어 사역팀을 구성한다.⁸⁾ 만약 지역사회 단위에서 교회 연합 차원의 뉴시니어 사역을 추진하는 경우, 프로젝

8) 총회나 노회 차원의 뉴시니어 사역 조직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미국장로교(PCUSA)에서 출판한 사역 매뉴얼을 참고하라. Congregational Ministries Division PCUSA (2003). Older Adult Ministry a Guide for the Presbytery Committee. Miriam Dunson(ed.). Louisville, KY: Witherspoon Press.

트 형식이 아닌 지속적인 사업의 경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같은 성격의 ‘○○○지역시니어사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달체계 : 효과적이고 뉴시니어 사역을 위해서는 교단 총회 → 노회 혹은 연회 → 지교회까지 연결되는 전체 전달체계를 고려한 뉴시니어 사역 체계를 먼저 마련한 후 체계적인 사역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만약 교단이나 노회 혹은 연회 차원의 조직이 구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개교회 자체적으로 전달체계를 갖추고 다른 교회 및 지역사회 조직과 협력한다.

③ 사역 모델 및 프로그램 연구·개발팀 구성 : 중소교회의 경우 뉴시니어 사역을 시작해도 오늘 날의 뉴시니어의 욕구와 특성을 고려한 사역 모델이나 프로그램 개발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교단 차원 혹은 교회연합 차원의 연구·개발팀을 구성할 수 있다.

④ 교회연합 및 거버넌스 사역 : 교단 차원이나 장로연합회나 남녀전도회전국연합회 등의 전국 조직에서는 ‘1교회 1노인 일자리 만들기’, ‘노인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사업’, ‘실버재능봉사은행’ 등과 같은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와 협력해서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친교활동

① 참여적 예배와 찾아가는 예배 : 뉴시니어들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획과 거동이 불편한 재가노인을 위한 찾아가는 예배의 기획이 필요하다. 뉴시니어가 참여하는 예배의 경우 단순한 예배도우미나 봉사자의 역할보다는 뉴시니어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찾아가는 예배 기획의 경우 시니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예배의 성격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② 친교 조직의 다원화 : 교회의 소그룹은 남녀선교회나 구역(목장 혹은 속회)와 같은 교회의 공식적 조직에 가까운 성격을 갖고 있는데, 뉴시니어의 다양한 관심사를 고려할 때 가능한 한 비공식 소그룹을 구성할 수 있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욕구 조사를 통해 수요를 확인하고 리더십을 찾아 그 리더를 중심으로 소그룹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소그룹의 성격은 친목, 학습, 자조집단 등 제한되지 않는다.

3) 여가활동

① 여가의 자원화 : 과거의 여가의 개념은 소비적인 개념이었지만, 목적과 의미를 잘 부여하면 여가를 자원화할 수 있다. 여가시간과 여가활동을 임의로 내버려두기 보다는 개인의 관심과 수행역량 및 여건을 고려한 여가설계에 의해 자신과 교회 및 사회에 생산적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뉴시니어와 노년기의 여가는 다른 사회적 자원이 축소되는 시점에서 매우 유용한 자원이 되기 때문이다.

② 뉴시니어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 뉴시니어의 관심, 흥미, 욕구 등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실용적이고 재미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노년기는 인생의 그 어느 시기보다도 개인 간의 차이가 큰 시기다. 타고난 유전적인 차이 뿐 아니라 노년기까지 살아오면서 쌓인 경험, 환경, 학습, 습관 등의 차이가 모두 합쳐져 노년기의 개인차를 만든다. 따라서 커다란 개인차를 지닌 노년기 학습자들의 교육적 욕구 또한 매우 다양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제까지 노인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교육 프로그램들은 제한적인 공간에서 제

공되는 단순 교양이나 여가·취미교육의 영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예전부터 하던 일방적인 전달식 프로그램이었지만 이제는 뉴시니어가 가진 욕구의 다양성에 기초하여 다양한 장소와 시간대와 다양한 목적과 활동 수준에 의해 기획된 뉴시니어 프로그램들이 제공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③ 통합형 여가 프로그램 운영 : 뉴시니어 시기부터는 일, 교육, 여가 등이 독립된 형태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보다는 일-교육-여가가 통합적이고 균형 잡힌 프로그램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지금은 로드 스칼라(Road Scholar)라고 명명되는 엘더호스텔(Elderhostel) 프로그램과 같은 활동형 여가-교육 통합 프로그램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개교회 차원에서 운영이 어려운 경우, 교회 간 협력사업으로 대학 혹은 교회와 협약을 맺고 양질의 여행과 교육이 제공될 수 있는 각 지역 교회 수양관 및 기독교대학 등을 이용하여 성지순례 및 여행과 신앙 및 교양 교육을 통합한 여가와 교육 결합형 엘더호스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자기주도적이고 활동적인 뉴시니어들에게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4) 종교활동(영적 웰빙)

- ① 영성훈련 : 뉴시니어들이 각자가 처한 상황이나 신체적, 심리적 혹은 사회경제적 조건이 열악할 경우, 소위 노년초월(Gerotranscendence)과 같은 영적 자원을 통한 영성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자신의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 보다 활력 있고 참여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다. 그리고 참만남 집단과 같은 집단 프로그램 형태의 영성훈련을 기획하여 사별이나 가족문제 혹은 은퇴 등으로 인해 심리정서적 문제를 경험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지나치게 기독교적 색채를 띠지 않는다면 비신앙인도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 ② 목회상담 : 중노년 시기에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심리사회적 문제를 도울 수 있는 목회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때 상담가는 상담전문 역량만 보유해서는 안되면 고령자의 특성과 노화적 관점을 이해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④ 뉴시니어 경배와 찬양 집회 : 한때 온누리 교회와 같이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서는 소위 경배와 찬양 집회가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경배와 찬양 집회가 젊은 기독교인들의 전유물이라면, 중고령자에게 있어서도 이러한 문화가 있어야 한다. 바로 그 중 하나가 7080가요와 같은 옛 문화와 정서를 담고 있는 그 연령대가 선호하는 경배와 찬양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한 예로, 대전경로대학연합회에서는 시범적으로 월 1회 대전제일교회에서 여러 교회 노인대학 어르신들이 참석하는 경배와 찬양 집회를 열고 있다. 중보기도와 함께 어르신들의 정서에 맞는 찬양을 통해 새로운 찬양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5) 교육활동

- ① 목회적 가르침 : 목회자들은 일 년 중 아주 드물게, 아버지 주일과 같은 특별한 날이 아니면 중년 혹은 노년에 대한 설교나 교육을 잘 하지 않는다. 특히 주일 예배의 설교시간은 교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이 설교를 통해 시니어들이 어떤 태도와 방식으로 노후를 영위해야 할지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전달해 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설교시간에 전해지는 메시지가 실제 교회의 뉴시니어 사역에 동력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뉴시니어의 노후에 대한 목회적 가르침을 위해서는 노화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의 자료들이 필요하므로 뉴시니어 사역과 관련된 목회자료 확보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 ② 뉴시니어 사역 전담인력 교육훈련 : 이미 이 사회의 중고령자에 대한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일정 수준의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 뉴시니어 사역을 담당하는 경우 지금까지의 사역 방식 그대로 고수하게 된다. 따라서 개교회 차원의 교육이 어렵다면 교회 연합 차원의 교육에 참여하거나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새로운 흐름에 맞는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 ③ 통합성(integrity)에 기초한 노인교육 : 앞에서 엘더호스텔 관련 내용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아동기로부터 청장년까지는 개인 및 가족생활 영역, 경제적 소득 창출을 전제로 하는 직업생활 영역, 무보수성을 전제로 하는 자원활동 영역, 그리고 취미·여가활동 영역 간의 구분이 명확하다. 그러나 노년기의 삶은 가족생활, 직업생활, 자원활동, 취미·여가활동 영역 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게 된다. 한 마디로 말해 중고령자의 삶은 통합적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노년기 삶의 통합적 성격으로 인하여 노인에게 있어 뉴시니어들이나 노인들에게 있어서 학습활동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뉴시니어들에게 있어서 교육은 여가활동이자 자기 자신의 의미를 발견하는 작업이기도 하고, 삶의 보람을 얻는 자원활동이기도 하며, 친구들을 만나고 교류하는 만남의 장이기도 하다. 따라서 교회가 노년여가 및 교육을 위해 노인대학이나 노년부를 운영하는 경우 단순한 여가교육 기능을 넘어서서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포괄적 노인여가교육기관으로서 기능해야 할 것이다
- ④ 노인교육 협동조합 운영 : 개교회에서 별도로 노인대학과 같은 노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봉사자나 강사 수급 및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효과적인 뉴시니어 교육사업을 위해서는 전문인력면에서는 재정면에서 협동조합 형태로 노인대학을 운영하면서 강사나 커리큘럼, 그리고 연합집회 등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시니어 교육협동조합이 조직되면 표준화된 교육과정과 양질의 강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으며, 각 교회 마다 특화된 강의나 프로그램 개발로 뉴시니어 및 노인 세대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 ⑤ 예비노년층 생애재설계 및 노후준비교육 프로그램 운영 : 성공적이고 활기찬 노후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생애재설계가 필요하다. 50플러스센터나 인생이모작지원센터 등과 같이 이미 사회에서는 생애재설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계속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참여인원이 수요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라 교회의 뉴시니어 사역에 반드시 포함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독교인인 뉴시니어는 재무설계가 강조되는 일반 생애재설계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는 충분치 않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포괄할 수 있는 영적 특성이 고려된 생애재설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필요가 있다.
- ⑥ 교육 소외지역에 대한 온라인 교육 및 순회교육 서비스 제공 : 고령화가 극심한 농어산촌 지역의 경우 사실상 시니어 사역의 필요성이 더욱 높다. 그러나 이러한 곳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외에는 여가 및 교육과 같은 사회참여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소일거리나 TV 시청으로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 경우 인접한 도시지역 교회의 뉴시니어들로 강사진을 구성하여 방문형 교육사역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교육 소외지역의 시니어 사역을 위해 웹방송이나 화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한 ICT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한 예로, 올해 대전지역의 지자체-대학-노인복지관-건강보험공단-기업이 협약

을 맺고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쌍방향 실시간 ICT 노인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교육시스템을 경로당이 아닌 교회 노인대학에 접목한다면 직접 노인대학 운영이 힘들거나 양질의 강사진을 확보하기 어려운 교회의 시니어 사역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CT 교육시스템은 쌍방향 소통 시스템이므로 다른 교회 노인대학과도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다.

- ⑦ 자발적인 학습문화의 확산 : 신노년 시대에는 이전의 일방향, 주입식 교육이 아닌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구조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대집단 중심의 노인교육 관행에서 벗어나 소집단 활동 및 자발적 학습 동아리 등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자발적인 소집단 활동은 시니어들의 역량강화에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에 조금 까다롭더라도 점차 자발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인내를 갖고 이끌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학습 동아리를 조직하여 활동하기를 희망하는 시니어 학습자들의 신청을 받아 이용 가능한 다양한 학습장소를 제공하며, 시니어들이 스스로 학습활동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학습주제, 학습프로그램의 개발방법, 학습동아리 운영 매뉴얼 등 자발적 학습동아리 운영에 관한 안내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6) 봉사활동

- ① 뉴시니어 봉사단 조직·운영 : 미국의 전문 시니어 자원봉사조직인 AARP나 RSVP와 같이 기독교 뉴시니어 봉사단을 조직, 운영할 필요가 있다. 봉사활동의 특성상 개인이 혹은 지역 차원에서 효과적인 부분도 있지만, 보다 지속적이며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봉사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국 단위의 조직도 필요하다. 지금도 재난재해 구호활동을 일부 교단에서는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를 대표할 수 있는 봉사단 조직도 필요한 시점이다. 뉴시니어의 경우 고학력자와 사회참여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일반 자원봉사 활동도 가능하지만, 자신의 재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능기부 형태의 봉사활동도 필요하다.
- ② 지역사회 기반 교회연합 시니어 봉사 파트너십 : 지역사회의 욕구와 문제는 한 두 교회의 책임이 아니라 그 지역과 인접한 많은 교회가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회 간에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개신교회가 개교회주의 성향이 강하다보니 교회 연합 사업이 쉽지는 않지만 시니어들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결집하면서 다각적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큐메니칼 정신에 입각하여 교회 협력과 연합을 통한 봉사 파트너십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지역사회 시니어 인력뱅크 혹은 재능뱅크를 구성하는 것이다.
- ③ 사별 돌봄사역 및 호스피스 사역 : 교회가 사회의 어떤 기관이나 조직보다 큰 강점은 인간의 절망과 한계를 다루는 데 강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웰다잉법(‘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이 2018년 1월 시행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사별 사역 및 호스피스 사역의 요구는 점점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교회가 보다 전문적이고 조직적으로 지역사회에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현재 샘물호스피스나 사랑의 교회 호스피스 사역 등 일부 기독교 단체나 교회가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사별이나 질병을 경험했거나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시니어들이 참여하여 사별자와 그 가족을 임종 전부터 임종 후 일정 기간 동안 지원할 수 있다면 이것이 교회가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봉사 사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교회에서 장례식과 같은 종교적 예식은 주로 성직자가 담당하지만 사

별 사역이나 호스피스 사역은 평신도 시니어들이 효과적으로 잘 담당할 수 있다.

- ④ 기독교 시니어사회공헌포털 : 요즘은 정보화 시대이다. 따라서 봉사자나 수혜자 모두 정보를 필요로 한다. 특히 자원봉사나 재능기부 및 사회공헌 활동 등에는 서로의 수요를 맞출 수 있는 정보 교류가 원활해야 한다. 따라서 범교단 차원에서 혹은 지역 교회들이 협력하여 기독교 시니어사회공헌포털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 ⑤ 시민운동 참여 : 과거의 제자훈련이 대부분이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일군을 양성하기 위한 성격이 강했다면, 오늘 날의 제자훈련은 교회의 공공성에 기초한 사회적 책임의 관점에서 시민으로서의 제자가 되는 훈련을 요구받고 있다. 그래서 제자훈련의 새로운 버전으로서 제자훈련 2.0이나 3.0은 예수의 제자이면서 동시에 좋은 시민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일군을 양성하는 패러다임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뉴시니어들의 역량을 교회 내에만 두지 않고 시민사회의 다양한 건강한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뉴시니어들에 대한 제자훈련 내용을 대폭 조정하여 지역사회 속에서 좋은 시민으로서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사회참여에 기반한 성공적 노년을 영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7) 연령통합 및 지역통합 사역

- ① 세대 간 문화공유 : 뉴시니어 세대가 가진 경험과 문화와 기술을 조금 가공하기만 한다면 전통문화의 인산동거리처럼 젊은 세대의 수요에 맞는 문화적 유산을 전수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어느 식당에서 옛날 양은 도시락을 이용하여 젊은 세대를 유인하는 전략을 사용한 것을 들 수 있다. 문화는 세대 차를 느낄 수 있게 하기도 하지만, 연령을 통합할 수 있는 좋은 접촉 코드가 될 수도 있다. 이를 위해 뉴시니어들이 가진 문화적 유산과 콘텐츠를 잘 개발하고 가공하여 젊은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 ② 세대 간 통합 교육 실시 : 뉴시니어 교육이나 노인교육이라고 해서 반드시 시니어나 노인만을 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다. 특히 고령화 시대는 연령분절적 사회가 아닌 연령통합적 사회로 나아가야 하므로, 뉴시니어 교육에서도 교육내용과 방식에 따라 여러 연령층과 함께 참여할 수 있다. 뉴시니어 및 노인에 대한 교육은 아동기, 청소년기 그리고 성인기와 중년기, 노년기로 이어지는 전생애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이므로 전생애에 걸쳐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에 관한 이해 교육, 퇴직준비교육, 노인을 위한 교육 등이 상호 연계성을 갖고 이루어져야 하며, 비노인세대와의 통합 교육도 필요에 따라 실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세대통합교육은 강의 방식으로만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노인들을 학교교육에 자원봉사자로 참여시키거나 청소년 자원봉사(봉사학습)의 영역을 세대공동체 영역으로 확대하여, 청소년 자원봉사시 지역의 노인자원봉사 단체와 연계하여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 ③ 도농간 지역통합 사역 : 도시와 농어촌은 고령화 정도가 매우 큰 차이를 보일 뿐 아니라 두 지역의 사회문화적 특성도 다르다. 그런데 고령사회 및 초고령사회에서는 연령통합적 노력만 가지고서는 고령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우므로 도·농간 교류와 협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건복지부(2008)는 고령친화모델지역 활성화를 위한 도·농·세대간 교류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수행하기도 하였는데, 도·농간 교류의 유형으로 인적교류, 상품교류, 문화교류, 복지교류, 자본교류, 정보교류, 서비스교류, 신뢰관계교류 등으로

구분하였다. 도시와 농촌 교회 간에도 이미 고령화가 많이 진행된 농어촌 교회와의 교류를 통해 고령화를 대비할 수 있는 해법을 발견할 수 있으며, 농어촌 교회도 제한된 자원과 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도시와 농어촌 교회가 단순히 농산물 직거래 수준을 넘어서서 도시와 농촌 교회가 서로 협력적으로 고령화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V.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교회의 뉴시니어 사역 모델 사례

1. 교회의 뉴시니어 사역 모델(S.E.N.I.O.R.S. 모델)

Gentzler(2006)는 교회의 뉴시니어 사역 모델로 S.E.N.I.O.R.S 사역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봉사모델로는 개인적 사역, 교회 안에서의 사역, 그리고 지역사회에서의 사역 3가지 모델을 제시하였다.

S: Spirituality(영성 모델)

- 성경공부, 기도모임, 기독교교육, 수련회, 예배 참석 등

E: Education(교육 모델)

- 특강,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노인의 관심사에 대한 교육 및 세미나 등

N: Nutrition and Health(영양 및 건강 모델)

- 건강 관련 교육, 식생활 관리, 혈압 측정 등

I: Intergenerational Opportunities(연령통합적 경험 모델)

-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 및 예배, 교육 등에 모든 연령층을 함께 참여시키기, 요양원 등 노인시설에 학생 연계 봉사활동 등

O: Outreach/Service(봉사/섬김 모델)

- 노인들을 통한 교육, 돌봄, 무료급식, 카풀 등 다양한 지역사회 봉사활동 전개 등

R: Recreation(여가 모델)

- 다양한 취미활동, 캠프, 레저스포츠, 여행 등

S: Social Activities(사회참여 모델)

-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결

2. 뉴시니어 봉사사역 모델

1) 개인적 사역

- ① 돌봄
- ② 우호 방문
- ③ 안부전화
- ④ 동행 서비스
- ⑤ 일시보호 서비스
- ⑥ 집수리 서비스
- ⑦ 무료급식 서비스
- ⑧ 봉사활동
- ⑨ 신앙지도
- ⑩ 휘트니스 프로그램 제공

2) 교회에서의 사역

- ① 아동 지도(방과후교실 혹은 지역아동센터 등)
- ② 알림 서비스(인지능력에 문제를 가진 노인을 위한 안내)
- ③ 양조부모 봉사(결연)
- ④ 스토리텔링 봉사(동화 및 옛날 역사 이야기)
- ⑤ 연령통합교육 참여
- ⑥ 그룹 신앙지도
- ⑦ 상담
- ⑧ 중보기도사역
- ⑨ 예배 인도

3) 지역사회에서의 사역

- ① 주간보호서비스
- ② 범죄예방활동/노인인권옴부즈맨
- ③ 가사일 돕기
- ④ 맞벌이 가정 아이 돌보기
- ⑤ 주택 공간 셰어링
- ⑥ 사별노인 돌봄서비스
- ⑦ 예술 봉사

3. 교회의 뉴시니어 사역을 위한 지도자 훈련 과정

교회의 뉴시니어 사역을 담당할 지도자를 위한 훈련 과정으로 주제에 따라 크게 두 개의 과정으로 구분하였다. 첫째는 뉴시니어 사역의 기초과정으로, 시니어 사역의 성공적인 출발을 위해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할 시니어 및 노화에 대한 이해, 교회의 뉴시니어 사역 분야와 모델, 그리고 뉴시니어 사역 사례와 실천 과정에 대한 주제를 다룬다. 둘째는, 심화과정으로, 뉴시니어 사역의 실제적 수행을 위한 심층적인 주제들을 다룬다. 즉, 사역조직 운영, 뉴시니어 선교, 뉴시니어 자원봉사, 돌봄사역, 영적돌봄, 노후(은퇴)준비, 네트워크, 교회 본질 사역에의 뉴시니어 참여, 연령통합사역, 뉴시니어 사역프로그램 개발 등이다.

1. 뉴시니어 사역세미나 기초과정

1) 왜 뉴시니어 사역인가? :

- 고령사회에 대한 이해
- 고령화 시대의 교회의 역할
- 뉴시니어 사역의 철학과 방향

2) 늙어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

- 노화에 대한 노년학적 이해
- 노화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
- 노화의 편견 깨트리기

3) 뉴시니어는 누구인가? :

- 뉴시니어의 특성 이해 : Senior Adult, Senior, Young-Old, Old, Oldest-Old
-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 이해
- 생애주기에 따른 뉴시니어와 노인의 이해

4) 노년기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

- 노년기에 경험하는 문제와 해결 방안
 - 신체적 문제 : 신체 질병(노인성 질환)
 - 심리적 문제 : 배우자 사별, 죽음불안, 우울 등
 - 사회적 문제 : 빈곤, 은퇴, 일자리, 여가활동, 사회참여 등)
 - 영적 문제 : 소진(탈진), 삶의 무의미, 영적 혼란, 죽음 불안 등
- 노년기 문제 해결 방안

5) 노화를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들

- 생물학적 이론
- 심리사회적 이론
- 성공적노화이론
- 역량강화이론

6) 노년교육 :

- 기독교 노년교육의 목적과 목표
- 기독교 노년교육의 교육과정
- 기독교 노년교육의 방법과 내용

7) 뉴시니어 사역 분야 :

- 심화과정에서 제시된 주제에 대한 개요
- 노인대학, 사별목회, 자원봉사(재능봉사, 사회공헌), 시니어선교, 노인돌봄, 영적돌봄, 교회사역의 노인참여, 노후준비, 세대통합, 노인복지, 자원연계 등

8) 뉴시니어 사역(S.E.N.I.O.R.S Ministry) 모델 :

- S : Spirituality(영성 모델)
- E : Education(교육 모델)
- N : Nutrition and Health(영양 및 건강 모델)
- I : Intergenerational Opportunities(연령통합적 경험 모델)
- O : Outreach/Service(봉사/섬김 모델)
- R : Recreation(여가 모델)
- S : Social Activities(사회참여 모델)

9) 뉴시니어 사역 사례

- 교회 및 지역사회 특성별 모델 사례 발표

10) 개교회의 뉴시니어 사역의 실천 단계(과정)

- 교회의 뉴시니어 사역 실천과정
- 교회 뉴시니어 사역위원회 단계별 실천 방법의 세부 내용

2. 뉴시니어 사역 세미나 심화과정

1) 교회 노년사역위원회 조직 및 운영 :

- 개교회의 노년사역위원회 조직 및 운영 절차
- 노회의 노년사역위원회 조직 및 운영 절차

2) 노인대학 및 노년부 운영 :

- 노인대학 및 노년부 설립 과정
-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프로그램 유형 및 프로그램 개발

3) 사별목회 사역 :

- 사별사역팀 조직 및 운영 방안
- 사별에 대한 이해 및 사별 가족 돌봄 방법
- 죽음준비교육

4) 뉴시니어 자원봉사(재능봉사/사회공헌) 사역 :

- 뉴시니어 자원봉사 및 현장의 이해
- 뉴시니어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과 관리
- 뉴시니어 자원봉사 코칭

5) 뉴시니어선교전략 :

- 뉴시니어 전도전략(노인 소그룹 네트워킹, 노인찬양집회 등)

6) 재가노인 돌봄사역

- 재가노인에 대한 이해
- 재가노인 돌봄 서비스 유형
- 교회의 재가노인돌봄 모델(파견, 주야간보호, 경로당 연계 등)

7) 영적돌봄사역

- 노년기 신앙과 영성 이해
- 영적돌봄의 모델(관점)과 실제

8) 교회의 사역에의 뉴시니어 참여

- 예배, 교육, 봉사, 선교 등 교회 사역의 뉴시니어 참여 방안
(예, 치매노인과 예배 드리기, 재가노인 예배 드리기)

9) 노후준비 및 은퇴준비(생애재설계) :

- 노후준비 및 은퇴준비 수준 진단
- 노후(은퇴)준비학교 운영

10) 연령통합(세대간)사역 :

- 세대 이해하기
- 세대간 소통(대화) 기술
- 세대통합교육 방법

11) 지역사회 뉴시니어 사역 자원연계 전략 :

- 지역사회와 함께 사역하기와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방안

12) 뉴시니어 사역 관련 조사도구 활용법 :

4. 교회의 뉴시니어 사역 실천 과정

1) Gentzler의 뉴시니어 사역 10단계 모델⁹⁾

Gentzler(2006: 31-37)는 교회가 뉴시니어 사역의 단계별 추진 과정을 제시하였다. 이 실천 과정은 교회가 뉴시니어 사역을 시작할 때,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를 경우 각 과정을 따라 한 단계씩 실천해 나간다면 큰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 1단계 : 뉴시니어 사역위원회(가칭)를 구성하라.

뉴시니어 사역에 대해 교회가 관심을 갖게 되면, 가장 먼저 뉴시니어 사역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함께 고민과 비전을 나누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기를 원하는 멤버들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구성한다. 이 모임에는 목회자와 노인전문가 및 일반 평신도가 함께 참여할 수 있다. 목회자가 일방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임명하기 보다는 뉴시니어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모이게 한 후, 일정 기간 동안 뉴시니어

9) Gentzler(2006)가 사역 대상을 'old adult'라고 명명하였는데, 여기서는 뉴시니어 사역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냥 뉴시니어로 표기하였다.

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게 하는 것이다. 구성원이 너무 많거나 적으면 효과와 효율이 떨어지므로 보통 적게는 6명, 많게는 15명 정도로 구성할 수 있다. 가능하면, 다양한 인구사회적 배경을 가진 남녀 뉴시니어 세대가 참여하도록 한다. 물론, 뉴시니어로만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위원회를 섬길 수 있는 청장년층이 2명 정도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준비모임이 어느 정도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일정 시점에 보다 공식적인 조직으로 출범시키게 된다. 이때부터 이 위원회의 권위를 부여하고 합리적인 예산도 배정할 수 있게 한다.

■ 2단계 : 뉴시니어 세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라.

뉴시니어 사역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교회와 지역사회의 뉴시니어 세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나가도록 한다. 이때 뉴시니어의 다양한 욕구와 강점 자원들을 사정할 수 있는 조사도구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정보 수집 내용은 노년사역에 필요한 정책과 프로그램 수립을 위해 필요한 인구사회적 특성, 교회 및 지역사회 뉴시니어들의 욕구와 관심사, 활용 가능한 뉴시니어들의 재능 등이다. 이 외에도 가능한 뉴시니어에 대한 많은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정보량이 많을수록 보다 효과적인 노년목회 전략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다 심층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 설문조사 형식보다는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 3단계 : 기존 교회의 뉴시니어 사역 프로그램을 검토하라.

새로운 노년목회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미 교회가 실시하고 있는 노년사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지금까지 교회 및 지역사회 속에서 교회가 어떤 뉴시니어 프로그램을 실시해왔는지, 그리고 그 사역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수행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교회 뉴시니어 프로그램에 대한 재검토는 2단계에서 조사된 노년층에 대한 정보에 기반하여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지, 또 그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뉴시니어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는지 등을 확인함으로써 무엇을 보완하고 무엇을 추가해야 할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 4단계 : 지역사회 뉴시니어 관련 기관을 조사하라.

뉴시니어 사역을 본격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하기 전에, 먼저 3단계에서처럼 교회의 선행 사역을 검토한 후,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 노년층을 위한 어떤 기관이나 시설 혹은 단체가 있는 지를 확인한다. 교회가 뉴시니어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보다 훨씬 더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이미 제공하고 있는 유사한 사역을 중복해서 교회가 제공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의 뉴시니어 기관을 잘 리뷰한다면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해야 할 것인지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5단계 : 교회의 뉴시니어 세대를 위한 노년사역 프로그램을 발굴하라.

뉴시니어 세대에 대한 적절한 정보 수집과 교회 및 지역사회의 노년층을 위한 기존 프로그램을 검토한 후에는,

이제 교회가 감당해야 할 뉴시니어 사역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조사를 통해 확인된 교회 노년층의 다양한 요구 사항들을 목록화 하고 우선순위를 정한 후 가장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할 프로그램을 선택한다.

■ 6단계 : 뉴시니어 사역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목적과 목표를 수립하라.

뉴시니어 세대의 요구에 가장 적절한 사역 프로그램이 선정되었다면, 우선, 그 사역이 추구하는 비전을 1차적으로는 뉴시니어 사역위원회에서, 그 다음에는 교인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비전을 공유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기획해도 실패하게 된다. 비전에 대한 구체적인 공유를 위해서는 반드시 소명진술서를 작성하여 교인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목적과 세부 목표에 대해서도 참여하는 교인들이 그 과정과 추구하는 최종 결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7단계 : 교회 및 지역사회 자원과 핵심 인물을 확인하라.

뉴시니어 사역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 및 실천 내용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공유되었다면, 본격적인 실천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가용 자원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이 사역에 필요한 인력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역 프로그램에 필요한 인적, 물적, 그리고 조직자원을 충분히 검토하여 가장 적절한 자원과 인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8단계 : 필요하다면, 다른 교회나 기관과 협력하라.

교회나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뉴시니어 사역으로 선택되었지만, 개 교회가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렵거나 협력을 통한 사역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면 다른 교회나 전문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사역 프로그램을 잘 분석하여 서로의 역할과 기능을 잘 배분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 9단계 : 프로그램을 시행하라.

앞에서 언급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된다. 이때 수행과정에 대한 꼼꼼한 점검과 가용 자원의 활용방법에 대한 계획을 점검하고, 사역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목표에 대한 달성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표를 통한 성과측정을 진행한다.

■ 10단계 : 평가하라.

뉴시니어 사역위원회는 매 사역 프로그램 마다 목적과 목표의 달성 여부를 확인할 뿐 아니라 지향하는 비전과의 관련성도 함께 평가하고 점검한다. 평가를 통해 프로그램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거나 수정보완할 내용을 검토하게 된다.

5. 성공적 노화에 기반한 교회의 뉴시니어 교육 과정(노인대학)

1) 뉴시니어 교육의 목적

교회의 뉴시니어 교육의 목적은 뉴시니어로 하여금, 전인적인 관점에서 성공적 노화, 활동적 노화, 생산적 노화를 영위할 수 있도록, 1) 이전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경제적 기능이 노년기에도 유지될 수 있도록 하며, 2)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살게 하며, 3) 삶의 다양한 변화와 굴곡 속에서 자율성과 주도성을 갖고 삶의 균형을 잡을 수 있게 하며, 4) 중년 및 노년기에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와 고통에 대해 충격을 완충할 수 있는 전략과 자원을 확보케 하며, 5) 자신과 주변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나님 주신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의미 있고 보람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 뉴시니어 교육과정의 핵심 주제

성공적 노화와 역량 강화의 관점을 바탕으로 신노년 시대에 요구되는 교회의 뉴시니어 교육의 핵심 주제를 개발하기 위해 국내외의 성공적 노화 요소에 대한 연구를 요약 정리한 결과 <표 6>과 같이 5가지의 성공적 노화의 핵심주제로 분류할 수 있었다.

<표 6> 성공적 노화 구성요소의 핵심 주제 분류

학자	유지	지향	균형	완충	조화
Wong(1989)			적응 능력, 신체적 적응	심리적안녕감	
Ryff(1989)		인생목표, 개인적 성장	자율성, 환경에의 숙달	자기수용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
Baltes & Baltes(1993)	장수,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생산성	인지적효능감, 개인조절능력, 사회적 유능감	생활만족	
Vailant(1994)	신체적 건강, 생물학적 건강, 수명, 심리사회적 건강, 심신의 활력			생활만족	
Fisher(1995)		개인의 성장, 목표의식	자율, 환경의 조절	자아수용	
Padilla & Grant(1995)	신체적 안녕, 정신적 안녕		신체상에 대한 관심, 진단 및 치료에 대한 반응		사회적 관심
Rowe & Kahn(1997)	질병 및 장애와 관련된 위험수준이 낮음, 높은 신체적·인지적 기능 유지	적극적인 삶의 태도			
Freud & Baltes(1998)			주관적 복지감, 긍정적 감정	외로움이 없는 것	

Guse & Masasar(1999)					가족 및 친구들과의 상호작용,
Fisher, Bradley, & Specht(1999)	건강	개인 성장, 목적의식	자율성	자기수용	
Crawfford (1999)		건강에 대한 만족		생활만족	사회적 만족
Collings (2001)		건강, 신체적 활동, 건강관리능력, 술·담배·약물 등의 문제 없음,	독립적인 삶	연금의 적절성과 연금의 지원	남편·자녀손·자녀와의 가족관계, 지역사회 존경, 지혜와 지식의 전수, 사회성
Crosnoe & Elder(2002)	활력	직업성공, 시민역할 참여		생활만족도	가족참여
Yewoubdar Beyene(2002)			신체적, 정신적, 영적, 가족간의 통합		좋은 인간관계
Ingersol-Dayton, et al.(2001)				수용, 즐거움	화목(가족, 친구, 이웃들과의 상호작용), 존경, 상호의존
Chou & Chi(2002)		기능적인 상태, 정서적인 상태, 인지적 상태	생산적인 참여 상태		
Blazer(2000)	활력		적응력, 자율과 통제, 통합	회복력, 지혜	사회적 통합
Tate, et al. (2003)	건강, 신체활동유지, 정신활동 유지, 사회활동 유지, 식이요법, 안전	적극적 태도	자립생활, 조절, 유용성	생활만족, 수용성, 취미, 만족, 유머	가족관계
Hanson(2004)	활동성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참여		
김태현, 김동배, 김미혜, 이영진, 김애순(1998)	신체·정신건강 차원	직업·은퇴생활 및 사회참여도	심리적 변화에 대한 적응 차원		가족관계 차원
성혜영, 유정현(2002)		정신적 신체적 기능유지, 경제적 준비, 질병 예방		삶의 만족, 복지혜택 및 편함	사회적 관계 유지 및 적응, 가족 간의 관계
박경란, 이영순(2002)		개인성장, 역할 완수, 봉사	자율, 자아수용	안락한 생활	상호교류
김은숙, 김귀분(2002)			독립적인 삶, 경제적 자립	대접받는 삶, 행복한 삶, 평안한 삶, 만족한 삶	

홍현방(2001)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자아개념, 통제감		사회적 접촉, 가족과의 접촉
강인(2003)	신체적 건강, 정서적 안녕, 경제적 안정	개인성장			가족지향
김미혜, 신경림, 신미선, 강인 (2004)	재산 복, 건강 복, 거처 복		죽음 복, 마음 복		부부 복, 자녀 복, 친구 복
김미혜, 신경림 (2005)	자기통제를 잘하는 삶 (일상생활관리)	자기효능감을 느끼는 삶 (생산적인 삶)	자기효능감을 느끼는 삶 (자립과 조절)		자녀성공을 통해 만족하는 삶, 부부간의 동반자적 삶
최혜경, 백지은, 서선영(2005)			중용적인 삶, 내 한 몸 추스르는 삶		자식에게 투영된 삶
백지은, 최혜경 (2005)	일상의 순조로움	과시성	자기관리	사회적 지원의 확보,	
김동배(2008)		자기완성 지향, 적극적 인생참여	자율적인 삶	자기 수용, 타인 수용	자녀에 대한 만족
전은희, 주용국 (2014)	건강 및 일상생활의 효능감, 경제적 안정	적극적 사회활동		노화수용	가족화합, 동반자적 배우자
권금주(2013)		여유롭고 활동적인 삶	건강하고 독립적인 삶	변화의 수용과 정갈한 삶	
안정신, 강인, 김윤경(2009)	일상의 안녕	심리사회적 안녕 (사회참여)	자기효능감	심리사회적 안녕 (수용)	심리사회적 안녕 (대인관계)

성공적 노화의 구성개념이 복합적이어서 2개 이상의 핵심개념에 해당됨

5가지 성공적 노화의 핵심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핵심주제는 ‘유지’(維持)이다. ‘유지’는 노년기가 되어서 이전 시기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경제적 기능과 수준을 가능한 한 손실되지 않고 유지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 노년기가 되면, 자연히 신체기능이 약화되고, 노년기 질환으로 인해 신체적 고통이 강화되며,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사회경제적인 소외를 경험하기 쉬운데, 가능한 한 이러한 상실과 쇠퇴를 방지하는 것이 첫 번째 뉴시니어교육의 주제가 된다. 이 주제의 구성 요소로는, 신체건강 유지, 질병 피해가기, 건강관리능력, 신체기능유지, 인지기능 유지, 경제력 유지, 노후생활설계, 경제적 지원, 활동 유지, 사회적 관계 유지, 주거안정 등이 있다.

두 번째 핵심주제는 ‘목표지향’(目標志向)이다. ‘목표지향’은 남은 인생 가운데 삶의 의미와 목표를 발견하고, 자신의 인생설계를 통해 자신의 역할을 탐색하고 성공적으로 감당함으로써 성취감을 얻는 것이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삶의 의욕을 잃고 최소한 20-30년 이상의 노년기를 무위(無爲)로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젊은 시절과 마찬가지로 삶의 비전과 목표를 갖고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며, 낭비하는 삶이 아닌 활동적인 삶을 살아감으로써 여전히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자신의 역할을 감당케 하며, 개인적인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주제의 구성 요소로는, 삶의 의미, 노후설계, 목표의식, 지향가치 소유, 사회적 기여, 봉사, 생산적 활동, 사회적 관심, 개인적 성장, 영적 성장 등이 있다.

세 번째 핵심주제는 ‘균형(均衡)잡기’이다. ‘균형잡기’는 삶의 다양한 변화 속에서 자신에 대한 이해와 정확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자신을 통제하면서 성공적인 삶의 적응을 이루는 것이다. 노년기는 특히 질병, 은퇴, 사별 등 삶의 변화가 큰 시기이므로, 이때 자신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삶의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자신과 자신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도적으로 자신의 삶의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주제의 구성 요소로는, 노화에 따른 자기 이해와 현실 인식(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 이해), 연령에 따른 역할 이해, 노년기 삶에 익숙하기, 자율성, 주도성, 자기통제 및 조절, 자립생활, 환경의 조절 등이다.

네 번째 핵심주제는 ‘완충’(緩衝)이다. ‘완충’은 노후에 경험하게 되는 삶의 변화에 따른 충격을 완충할 수 있는 내적, 외적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는 노년기에 어쩔 수 없이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삶의 문제와 고통에 대해 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자신의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수용하게 하며, 충격에 따른 빠른 회복을 위한 다양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이 주제의 구성 요소로는, 긍정적 수용, 적극적인 삶의 태도, 정신건강(심리적 안녕감), 삶의 만족도, 효능감, 의미 부여(신앙적 해석 능력, 지혜, 인지능력), 자아존중감, 삶의 긍정적 의미발견, 자아통합, 자원 확보(가족자원, 사회적 자원, 영적 자원), 위험 대비, 탈고립감, 복지적 대책 및 지원, 죽음의 수용 등이다.

다섯 번째 핵심주제는 ‘조화’(調和)이다. ‘조화’는 자신과 가족 및 이웃과 지역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조화를 이루어 다양성을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다. 이는 노년기의 가장 중요한 자원 중 하나인 사회적 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해, 자신과 가족, 그리고 이웃과 지역사회의 다양성을 수용하고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가족과 이웃, 그리고 지역사회와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주제의 구성 요소로는, 수용과 관용, 타협능력(자신 및 타인, 현실과 이상), 환경에의 숙달, 통합능력(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유연성 등이다.

〈표 7〉 성공적 노화의 5가지 핵심주제의 개념과 구성요소

구분	유지	목표지향	균형잡기	완충	조화
개념	노년기 이전에 영위하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영적 삶을 계속 유지하는 것	목표의식을 갖고 남은 인생 가운데 삶의 의미를 발견 하고, 인생설계를 통해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는 자신의 역할을 탐색 및 감당한다.	삶의 다양한 변화 속에서 성공적인 적응을 위해, 자신에 대한 이해와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자율적으로 자신을 통제하며 조절하면서 성공적으로 삶을 살아 가는 것	노후에 경험하게 되는 삶의 변화에 따른 충격을 완충 할 수 있는 내적, 외적 자원을 확보 하는 것	자신과 가족 및 이웃과 지역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조화를 이루어 다양성을 통합할 수 있는 능력

구성요소	신체건강과 기능 유지	인생과업 설정	자기 이해	긍정적 수용태도	통합능력
	질병 피해가기	노후생활설계	현실 인식	적극적 삶의 태도	생명공동체 관점
	자신 신체적 특성 이해	삶의 가치 이해	자아수용과 통합	자원 확보	이웃과
	인지기능 유지	사회적 역할 찾기	자율성	(내적, 외적 자원)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
	정신건강 유지	영적성장	역할 이해	정신건강	타협능력
	경제력 유지		적응	위험 대비	수용 및 관용
	사회적 관계 유지		자기통제 및 조절	복지제도 이해	환경에의 숙달
	사회활동 유지		자립성	탈고립감	좋은 인간관계
	주거생활안정		환경의 조절	자아통합	새로운 관계 형성
				레질리언스 (회복력)	세대간 이해 및 교류
			죽음의 수용		

유지	사회활동 유지	·지역사회 활동 참여방법(평생교육, 복지관, NGO단체, 자원봉사 등)
목표 지향	삶의 의미 발견	·성경이 말하는 노년의 가치 ·나의 노년기 소명진술서 작성하기 ·성공적 노화 / 성공적 노화 모델 사례
	인생과업 설계	·노후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일, 여가, 건강, 사회관계 및 활동, 재정, 주거, 죽음과 사별 등) ·노후준비도 진단(노후준비척도 활용)
개인적 성장	생산적인 삶 영위	·노년기와 일(노년기 직업 개발) ·자원봉사(재능기부) 참여 하기 ·시민교육과 지역사회 참여 하기
	자기 이해	·노년기 평생교육 참여하기 ·영적성장을 위한 신앙훈련 ·노년기 자기 개발 방법
균형 잡기	사회변화에 대한 이해	·노년기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의 특성 이해 ·자기 인생 이해를 위한 자서전 쓰기 ·노년기 자아통합 향상 방법
	노년기 사회적 역할 적응	·현대사회의 변화와 미래 동향 ·효과적인 노년기 사회적 역할 수행 방법
완충	자립적인 삶 영위	·자립생활을 위한 실천 방법 ·자기주도성 향상을 위한 자아존중감 향상 방법 ·인터넷 및 IT기기 사용법
	긍정적인 삶의 태도 정립	·긍정적 삶의 태도와 신앙 ·감사의 비결 ·고난에 대한 신앙적 이해 ·웃음치료
완충	완충자원 확보	·노년기 자원(신앙, 가족, 친구, 종교단체, 지역사회 기관 등) 확보방안
	노년기 위기 대비	·노년기 위기 관리 방법(퇴직, 빈곤, 질병, 이혼, 사별, 고립 등)
	노인복지제도 활용	·노년기에 필요한 복지제도와 수혜 조건
조화	죽음의 수용	·죽음준비교육 ·사별의 의미와 혼자 잘 살아가는 법
	통합능력 함양	·가족(부부 및 자녀, 손자녀)와 소통하는 법 ·이웃과 친해지기 / 새로운 친구 잘 사귀는 법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젊은 세대 이해하기와 젊게 생각하기
조화	타협능력 함양	·대인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법(갈등 해결 및 협상 대화법) ·부부간 가사분담 지혜롭게 하는 법 ·현실과 타협하기
	관용과 수용 능력 함양	·용서하는 법 ·화해하는 법

3) 성공적 노화의 5가지 핵심주제에 따른 뉴시니어 교육과정

앞에서 제시된 5가지 핵심 주제에 따른 구성 요소들에 근거하여, 교회 뉴시니어 교육의 핵심 주제별 교육목표와 교육내용을 <표 8>와 같이 제시하였다. 이 교육과정은 교회의 노년부 혹은 노인대학과 같은 사역을 염두에 두고 작성되었다. 제시된 내용 이외에도 핵심 주제와 관련된 추가 교육내용이 있을 수 있으며, 한 주제를 여러 가지의 하위 주제로 구분할 수도 있다. 본 뉴시니어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3년 정도의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핵심주제별로 4가지 내용을 배정하여 3년 동안 60개 정도의 내용으로 채워지게 된다. 3년 마다 동일한 주제와 내용으로 반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교육과정의 주제와 내용은 목회자가 담당할 수도 있고, 교회의 평신도 전문가나 지역사회 전문가를 통해서 전달될 수도 있다.

그리고 교육방식은 전문가에 의한 강의, 시청각교육, 체험, 사례발표(연구), 집단활동(소그룹 세미나) 등 각 강의 주제와 내용에 맞는 다양한 교육 방법을 통해 교육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 3년 주기로 교육과정을 반복할 때, 동일 범주의 다른 주제를 다룰 수도 있고, 같은 주제를 다른 강사나 다른 교육방법을 통해 변화를 줄 수도 있을 것이다.

<표 8> 뉴시니어 교육의 핵심 주제별 교육목표 및 교육내용

주제	목표	교육내용
유지	노년기 주요 질병 예방	·노인성 질병 예방법(진단방법, 습관 및 태도, 식생활 등)
	노년기 질병 관리	·주요 질병별(고혈압, 당뇨, 치매, 관절염 등) 관리 요령 ·배우자 질병별 수발 요령
	건강 관리	·노년기 운동법(건강체조, 질병 및 신체증상별 운동법) ·일상생활동작수행능력 향상 방법(거동불편노인의 경우)
	정서기능 유지 및 회복	·치매예방 운동법 / 치매가족 돌보는 요령 ·우울증 예방 및 극복하기
	경제수준 유지	·재산관리방법 ·노인일자리 정보(노인일자리사업, 노인인력개발센터 사업 등)
	사회관계망 유지	·노년기 인맥 관리 방법 ·새로운 친구 사귀는 요령

VI. 맺는 글

미래사회는 고령화 물결(age wave)이 요동치는 사회이며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뉴시니어 사역을 통해 교회가 많은 기회들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교회가 단순히 고령화와 같은 사회현상을 인지하기만 하고, 아무 노력 없이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어서는 결코 고령화 물결이 제공하는 기회를 붙잡을 수 없을 것이다. 사실, 교회가 고령화 물결의 기회를 잡아 새롭게 도약하게 될 가능성은 그리 먼 이야기가 아니며, 현재 우리가 뉴시니어들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며, 뉴시니어 사역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며,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 그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중년 이후부터 노년기에 이르는 생애주기는 어떤 시기보다 하나님을 가장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시기로서, 이 시기에 고령사회의 새로운 혁신을 주도할 뉴시니어에 대한 사역을 교회의 중심에 두는 것을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최근 노화에 대한 관점은 사회 참여나 자립생활을 강조하는 ‘활동적 노화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회의 뉴시니어 사역 또한 신노년 시대에 적합한 활동적 노화 패러다임에 기초하여, 성공적인 노화의 준비와 적응, 창조적인 삶, 세대 간의 이해 증진, 젊은 세대들에게 삶의 경험 확대 등을 제공하며, 중고령자의 실존적 상황 속에서 효과적으로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뉴시니어들이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자립적인 노후를 영위하는 데 필요한 가치와 태도 및 기술과 지식을 습득케 하며, 성공적인 노후를 영위하기 위한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나이를 먹더라도 젊은 세대에게 뒤지지 않는 열정과 사회참여 의식을 가진 에이징 파워(aging power)로서의 뉴시니어가 사회적 주체로 이미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교회들은 노화의 부정적인 이미지에 기초하여 고령자를 의존적이고 나약한 존재로만 이해하고 그들의 잠재력과 주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따라서, 교회의 뉴시니어 사역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성공적 노화를 위한 자질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신노년 시대에 적합한 교회 뉴시니어 사역을 통해 뉴시니어 스스로가 중노년기에 대한 수동적이고 부정적인 인식을 떨쳐버리고, 희망과 설렘과 기대를 갖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회의 뉴시니어 사역은 교회를 부흥시키고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고령사회 및 초고령사회를 기회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VII. 참고문헌

1. 국내서적

- 김수영·박경하·이민홍·손태홍·이재정(2013). 『고령자 사회참여 시범사업 평가연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재단법인 부산복지개발원.

- 대한민국정부(2016).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 브릿지 플랜 2020』 .
방하남·신동균·이성균·한준·김지경·신인철(2010). 『한국베이비붐세대 근로생애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보건복지가족부(2008). 『고령친화모델지역 활성화를 위한 도농·세대간 교류 프로그램 개발』 .
손양민(2010). 『밥·돈·자유: 베이비붐 세대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21세기북스.
안전행정부(2005; 2010; 2012). 『주민등록인구통계』 .
장미혜(2005).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미래 문화소비구조 예측 및 대안』 심포지엄 자료집.
정경희, 이소정, 이윤경, 김수봉, 선우덕, 오영희, 김경래, 박보미, 유혜영, 이은진(2010).
『베이비 부머의 생활 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10-30-18.
정경희·손창균·박보미(2010). 『신노년층의 특징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10-30-17.
조미형·박대식·남승희(2014). 『농촌 지역사회기반(community-based) 복지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통계청(2010). 『2010 가계금융조사』 .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 .
한국문화체육관광부(2011). 『한국의 종교 현황』 .

2. 외국서적

- Arn, W. & Arn, C. (1999). Catch the Age Wave: A Handbook for Effective Ministry with Senior Adults. MI: Beacon Hill Press of Kansas City.
Blau, Z. S. (1973). Old Age in a Changing Society. New York: Franklin Watts.
Congregational Ministries Division PCUSA (2003). Older Adult Ministry a Guide for the Presbytery Committee. Miriam Dunson(ed.). Louisville, KY: Witherspoon Press.
Gallagher, David P. (2006). Senior Adult Ministry in the 21st Century : Step-By-Step Strategies for Reaching People Over 50. Eugene, OR: Wipf and Stock Publishers.
Hooyman, N. R. & Kiyak, H. A. (2011), Social Gerontology: A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 9th Edition. Boston : Pearson Inc.
Houston, J. M., & Parker, M. (2011). A Vision for the Aging Church: Renewing Ministry for and by Seniors. IL: IntraVarsity Press.
Leitner, M. J., & Leitner, S. F.(2012). Leisure Enhancement(4th ed.). Urbana, IL: Sagamore Publishing, LLC.

Paul, C., Ribeiro, O., & Teixeira, L. (2012). Active Ageing: An Empirical Approach to the WHO Model. *CurrGerontolGeriatrRes*, 382972.

Rowe, J. W., & Kahn, R. L. (1998). *Successful Aging*. New York: Pantheon Random House.

UNECE/ European Commission (2015), 21.

United Nations(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2015). *World Population Ageing 2015 (ST/ESA/SER.A/390)*.

Zaidi, A. (2016). 기조강연 II: 활동적 노화를 위한 세계적 전략: 개인적 및 사회적 차원. *건강·활동적 노화: 고령화 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 국제회의*. 30-62.

3. 번역서적

Harry S. Dent (2015). 『2018 인구 절벽이 온다』 권성희 역. 서울: 청림출판.

4. 학술논문

김수영, 이민홍, 손태홍(2015). 고령자 사회참여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 『한국지역사회복지학』, 53, 451-479.

김재열(2008). 노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고령 친화적 지역사회 모델: 충북 음성군을 중심으로. 『극동사회복지저널』, 4, 29-47.

윤종주(1994). 제 5 회 노인복지세미나 발표 및 토론원고: 노인과 사회참여; 그 현황과 전망. 『한국노년학』, 14, 169-178.

이소정(2009). 우리나라 노인의 사회참여 유형분석. 『한국인구학』, 32, 71-91.

최희경(2010). “신노년” 정책 담론에 대한 비판적 재검토-활동적 노화, 성공적 노화, 생산적 노화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17, 41-65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Global Social Policy Brief: 글로벌 고령화*, 36. 1-6.

한정란(2015). 한국 노년교육 연구의 현재와 미래. *한국노년교육학회 창립총회*. 15-34.

Bloom, David E, David Canning, and Günther Fink (2010). Implications of Population Aging for Economic Growth, *Oxford Review of Economic Policy*, 26(4). 583-612.

Johnson, K. J. & Mutchler, J. E. (2014). The emergence of a positive gerontology: from disengagement to social involvement. *Gerontologist*, 54(1). 93-100.

Hinterlong, James E.; Williamson, Angela. (2006). The Effects of Civic Engagement of Current and Fu-

ture Cohorts of Older Adults. *Generations*, 30(4). 10-17.

Neugarten, B. L. (1974). Age groups in American society and the rise of the young-old.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415(1). 187-198.

Riley, M. W. (1999). Letters to the editor. *The Gerontologist*, 38. 151.

Rowe J. W., & Kahn R. L. (1987). Human aging: Usual versus successful. *Science*, 237. 143 - 149.

Westgate, C. E. (1996). Spiritual Wellness and depression.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5(1). 26-35.

5. 백과사전, 신문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94519&cid=46615&categoryId=46615

6. 인터넷 자료

http://weekly1.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7/02/2008070200820.html

http://www.bosa.co.kr/umap/board_n_view.asp?board_pk=126071&what_board=1076

http://www.silvernews.or.kr/insiter.php?design_file=article_v.php&article_num=3374&board=article&search_item=A&search_value=%EC%84%9C%EC%9A%B8%EB%85%B8%EB%85%84%ED%95%99&x=29&y=0

CAUSE

because you are good
당신은 선한 사람입니다.

CAUSE

because you are good

당신은 선한 사람입니다.